R 918-4 | 2020.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3차년도): 라오스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Lao PDR

허 장 이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18-4 | 2020.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3차년도): 라오스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Lao PDR

허 장 이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허 장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이미나 | 연구원 | 제1~3장 집필

연구보고 R918-4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라오스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441-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으로, 인근 국가에 비해 인구나 경제규모가 작다. 그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농경지가 많지 않아 식량작물 생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메콩강을 끼고 있으면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커피 등 상업작물과 목재 등 산림자원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도 높은 나라이다.

2017년 신남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라오스와의 관계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소형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농촌개발, 농업용 수자원 개발 등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잘 추진되어 왔다.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된 왕국의 유물을 잘 간직하고 있는 라오스가 우리나라와의 협력, 특히 농림업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관계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과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보고서가 이를 위한 훌륭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라오스는 산지가 전국토의 70%가 넘는 산악국가이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가이다. 2016~2019년 기간에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15.3%를 차지한다.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전 인구의 3분의 2인 67%에 달하고, 노동력 인구 가운데 농업 종사인구는 70%에 이른다.

○ 2017년에 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에서 라오스가 속한 ASEAN 지역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 이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은 라오스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 농촌의 현황을 분석하고 라오스, 국제사회, 우리나라의 개발 및 협력전략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국내외 학술적 문헌과 보고서, 국내외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대상 및 참고용 자료로 사용하였다. COVID-19로 라오스 현지에서의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의 연구진에게 연구의 일부분을 조사, 분석하도록 요청하였다. 국내외 전문가 총 17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라오스 농업에서 가치사슬 협력의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라오스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며 전체 국토의 10%만 농업에 사용된다. 쌀은 전체 농작물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식단 구성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는 전체 농작물 수확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며 쌀 다음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이밖에 카사바, 사탕수수, 커피 등이 주요 작물에 속한다.

○ 라오스 정부는 농업을 "가장 중요한 전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한 전략으로 농업개발전략(ADS)은 2020년, 2025년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작물과 축산물, 시장경쟁력 있는 상업작물과 축산물로 구분하여 정책과 법령, 프로그램, 실행계획과 사업들, 나아가 집행과 점검, 평가를 담당할 중앙,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상세하게 열거하였다. '농작물부문개발전략'은 ADS의 취지와 ADS가 설정한 목표치 등에 따라 작물부문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라오스에 3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위 4위 공여국에 해당한다. 2017년에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는 2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 협력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의 내용은 "농촌종합개발을 통해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에 기여"이다.

○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중 농림수산업 부문 지원 총액이 2013년 2,281만 달러에서 2017년 5,132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對라오스 지원전략 가운데 IFAD, FAO, ADB 등의 협력전략을 살펴 보았다.

○ 라오스 경제 및 농업현황, 국가 및 농업부문 정책 등을 분석하고 라오스 측의 개발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라오스의 농림업 중점 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①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②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③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④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중점 협력 추진분야는 ①, ②, ③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④ 분야는 '안전한 농식품 생산'이라고 하는 기본방향 아래 놓이는 것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라오스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ABSTRAC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Lao PDR

Background and Purpose

○ Lao PDR is a mountainous and landlocked country surrounded by Vietnam, Cambodia, Thailand, and China. Its economy has grown continuously, recording 6~7% growth between 2016 and 2019. The share of agriculture in GDP is 15.3% in 2019, and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take two-thirds of the total population, while agricultural workers take 70% of all workforce.

○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New Southern Policy' in 2017, and Laos, as an ASEAN member, has become a crucial partner in the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state of Laos'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and review its development strategie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cooperation in development with Lao PDR.

Research Methodology

○ For the research, we explored international and local literature, statistics, and databases. Amid the COVID-19 situation, undertaking

field surveys was impossible. Instead, we gained advice and information from the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

○ We interviewed 17 international and local professional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each phase in Laos' agricultural value chains. We also us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analyze the data we collected.

Key Findings

○ As hills and mountains take 70% of the land, Laotians use only 10 percent of land for agricultural cultivation. Rice is planted in as much as 80% of the cultivated land, implying its uttermost importance in Laotians' diet and food security. Maize, harvested in 12% of the total harvested land,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crop. Cassava, sugarcane, and coffee are also the main agricultural products.

○ As the Lao government compares agriculture to the first and foremost battlefield, farming is of supreme significance. The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ADS) is a strategic instrument with development goals to achiev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ADS specifies food crops and livestock products for food security, commercial crops and livestock products for market competition. Also, it covers related policies, regulations, programs, action plans, implementation procedures, monitoring

methods, and policy evaluators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rop Sector 2025 and Vision 2030 includes detailed programs to achieve targets set in the ADS concerning crops.

○ Korea granted USD 365 million from 2008 to 2017, becoming the fourth-largest donor for Laos. It also offered USD 2 million in 2017 to develop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Laos focuses on poverty eradication and income increase through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 As international assistance to Laos doubled from USD 22.81 million to USD 51.32 million between 2013 and 2017, we reviewed the cooperation strategies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o understand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 We explored the selected areas for development in Laos'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to conduct a document-based comparison with Korea's ODA model programs. Based on our research, we suggest four areas to focus on in terms of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as following: i) infrastructure building for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ii) livestock breeding, management, and processing, iii)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and iv) sustainable and eco-friendly agriculture and food safety.

Researchers: Heo Jang, Lee Mina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2.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3

1. 배경 및 필요성 ····· 3
2. 목적 ····· 4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 4
4. 선행연구 검토 ····· 6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 13

1. 국가 현황 ····· 13
2. 농업 현황 ····· 31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 57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 65

1.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개발협력 현황 ····· 65
2. 국제사회의 對 라오스 개발협력 현황 ····· 75
3. 라오스의 개발협력 수요 ····· 81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 91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 91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 92
3. 중점 협력 분야 가치사슬 ····· 95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 101

1. 추진 방향 ····· 101
2. 세부추진 과제 ····· 101
3. 우리나라 해외진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 ····· 10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3

참고문헌 ····· 117

표 차례

제2장

〈표 2-1〉 국가개황 ····· 17
〈표 2-2〉 4대 경제 기조 ····· 22
〈표 2-3〉 주요 경제지표 ····· 23
〈표 2-4〉 산업별 경제 성장 및 구조 ····· 24
〈표 2-5〉 한국-라오스 교역 추이 ····· 28
〈표 2-6〉 주요 수출입 품목 ····· 28
〈표 2-7〉 농업면적 현황 ····· 31
〈표 2-8〉 영농시스템 ····· 34
〈표 2-9〉 농업인구 현황 ····· 35
〈표 2-10〉 농촌 및 도시 인구 현황 ····· 36
〈표 2-11〉 산업별 수출 비중 ····· 37
〈표 2-12〉 쌀 공급 현황 ····· 40
〈표 2-13〉 쌀 수확면적 및 생산량 ····· 41
〈표 2-14〉 라오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쌀 면적 및 생산량 ····· 42
〈표 2-15〉 옥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 43
〈표 2-16〉 카사바 수확면적 및 생산량 ····· 45
〈표 2-17〉 사탕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 46
〈표 2-18〉 주요 환금작물 생산량 ····· 49
〈표 2-19〉 주요 과일 생산량 ····· 52
〈표 2-20〉 주요 가축 수 ····· 53
〈표 2-21〉 버펄로 사육 수 ····· 54
〈표 2-22〉 ADS가 제시한 특별한 기술적 조치들 ····· 59
〈표 2-23〉 ADS가 제시한 지원 프로그램, 실행계획 및 사업 ····· 60
〈표 2-24〉 농작물 부문 개발을 위한 분야별 사업 ····· 61

제3장

〈표 3-1〉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규모 순위(2008~2017년) ····· 66

〈표 3-2〉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7년) ····· 67
〈표 3-3〉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 사업 내역 ····· 69
〈표 3-4〉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3~2018년) ····· 76
〈표 3-5〉 ADB 국가협력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 80
〈표 3-6〉 농업발전전략 2025 및 비전 2030 청정농업 실천계획 ····· 83

제4장

〈표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 92
〈표 4-2〉 국가개발계획 및 농업전략 등 분석 결과 ····· 93
〈표 4-3〉 SDGs와의 적합성 검토 결과 ····· 94
〈표 4-4〉 중점 협력 분야 선정 ····· 95
〈표 4-5〉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내 ····· 95
〈표 4-6〉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외 ····· 96
〈표 4-7〉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종합 ····· 96
〈표 4-8〉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하위 지표 분석(2단계) 결과 ····· 97

제5장

〈표 5-1〉 라오스 중점 협력 분야와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계 방안 ····· 10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흐름도 ····· 6

제2장

〈그림 2-1〉 국가지도 ····· 16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별 비율(1989~2018년) ····· 26

제3장

〈그림 3-1〉 IFAD의 국가전략기획프로그램 ····· 78
〈그림 3-2〉 GAP 기반 청정농산물 재식면적(ha) ····· 84
〈그림 3-3〉 유기농산물(OA) 재식면적(ha) ····· 84
〈그림 3-4〉 수도 비엔티안 유기농산물 가치사슬 ····· 86
〈그림 3-5〉 지방 시엥쿠앙주(호이마을) 유기농산물 가치사슬 ····· 87

제5장

〈그림 5-1〉 우리나라의 라오스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 108

약어표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농업개발전략
AVC	Agricultural Value Chain	농업가치사슬
COSOP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
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국가계획프레임워크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경제개발협력기금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WC	East-West Corridor	9번 국도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AW	Fall Armyworm	열대거세미나방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I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제도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CB	Lao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원
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자연자원환경부
NAFRI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라오스국립농림연구원
NTR	Normal Trade Relation	통상무역관계
NTFP	Non-Timber Forest Products	비목재임산물
OA	Organic Agriculture	유기농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PRI	Productive Rural Infrastructure	생산적 농촌인프라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EZ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	경제특구
SMU	Saemaul Undong	농촌공동체개발사업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1장

서론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라오스는 산지가 전 국토의 70%가 넘는 산악국가이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가이다. 한반도보다 약간 큰 국토에 7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구 규모가 큰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 비해 국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로서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제도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발전하였고 2016~2019년 기간에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GDP 대비 15.3%를 차지한다. 그 비중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적으나,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전 인구의 3분의 2인 67%에 달하고, 노동력 인구 가운데 농업 종사인구는 70%에 이를 정도로 농업과 농촌지역은 국가의 사회, 경제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오스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뒤늦게 우리나라와의 경제, 개발협력 관계가 커가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 정부가 천명한 신남방정책에서 라오스가 속한 ASEAN 지역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개발을 통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라오스에 대해 농림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라오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협력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 목적

이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은 라오스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 농촌의 현황을 분석하고 라오스, 국제사회, 우리나라의 개발 및 협력전략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이 연구는 라오스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방향 설정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국내외 학술적 문헌과 보고서, 국내외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대상 및 참고용 자료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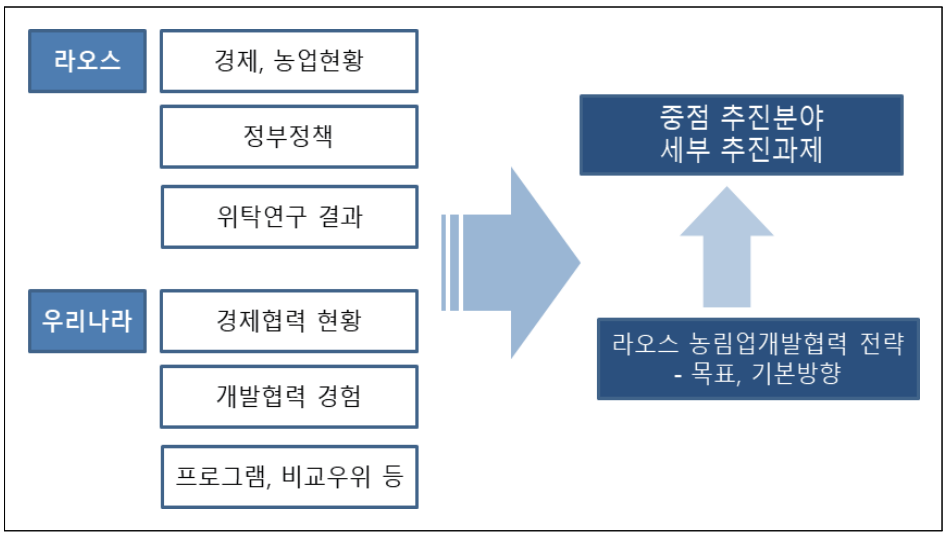
2020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 COVID-19로 라오스 현지에서의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의 연구진에게 연구의 일부분, 즉 라오스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에 관한 현황과 정책, 개발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도록 요청하였다. 위탁연구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였다. 위탁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중점 협력 분야로 '청정농업' 혹은 친환경농업을 선정하고 이

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라오스 농업에서 가치사슬 협력의 단계별 중요도, '한국형 ODA 모델'의 농업분야 프로그램이 라오스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도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라오스 농업분야 정책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었고, 국내 8명, 국외 9명 등 총 17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및 그 내부에서의 세부 분야별 중요도의 순위를 매길 수 있었다. 이는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국가 및 농업, 농촌 현황,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 즉 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들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라오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개발전략과 농업분야 발전 전략을 정리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수요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 추진분야를 라오스 개발수요, 위탁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점 추진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 과제로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4.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라오스의 농업·농촌 현황 및 전략, 개발협력 방향 및 전략 등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세원 외(2017)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라오스의 농업·농촌 개발현황과 개발수요 파악,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검토, 라오스 농업 부문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 분석 및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對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으로 1) 한국의 분절화된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의 재정비, 2) 농지제도 협력, 농업기계화 임대 사업 지원, 유기농업 부문의 상호협력, 3) 농촌지도 및 기술혁신 분야 협력체계 강화, 4)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

공활성화 개발협력 사업, 5)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 연계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 및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김미림(2019)은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라오스의 경제 현황과 특징, 성장 전략 변화, 기존의 한·라오스 경제협력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라오스 공여는 2015년 수력 발전댐 출자 이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방향은 신남방정책의 사람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산업인력 양성, 직업훈련 등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고, 제도적 연계성 부문에서 라오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엄수원(2017)은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추진실태를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라오스 정부가 새마을운동이 농업·농촌 개발에 효과적이며,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추진하는 데 우호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국가정책화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라오스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10개년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시행전략(2016-2025)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새마을운동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라오스의 농촌개발 정책인 삼상정책(Three Builds Policy)과 연계한 라오스형 새마을운동 모델 개발, 둘째, 정부의 최고지도자,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3주체 거버넌스의 사회운동 역할, 셋째, 행정지도,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장려, 재정 지원, 새마을 교육과 홍보 등의 통일적인 정책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 메콩유역 국가의 농업 현황과 향후 협력 전략을 언급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강상인 외(2016)는 라오스를 포함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내 메콩유역 국가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농산업 부문의 융합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농업 부문에서의 융합혁신 전략으로 1) 농업생산의 하위 부문

내에서 가용한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고도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엘리트 벼 종자를 활용한 대체건습 시스템 도입, 토양·작물·관개 관리의 개선을 통한 집약적 미작 영농기법의 채용, 농업 부산물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다양한 농업생산의 하위 부문에서 이루어진 기술혁신 성과를 복합영농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하는 것으로 채소재배와 가금류 생산 및 어류양식을 연계한 다목적 농장, 연안지역에서 맹그로브 숲과 수경재배 및 새우양식을 병행한 농업 시스템, 3) 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성과를 농산업 부문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투입요소, 작물재배, 수확 후 처리 및 유통 부문에서의 생산 효율성과 수익증가를 추구하는 정보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완주(2014)는 동남아지역에 해외농업기지 확보를 위한 농업 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진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농업·농촌 환경, 농업기술 수준 및 작목별 생산성, 국내 농산업 개발업체 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라오스는 관개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북서부의 산야부리 지역의 개간이 가능한 미개간지에서 옥수수와 콩 생산의 가능성이 있으나 유통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농·축산물의 저장·가공 분야와 농기계 및 피복자재와 관수자재 그리고 종자 사업 등을 유망 진출 분야로 제시하였다. 동남아시아 진출 희망 기업의 경우 정부와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된 민간 회사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방법과 복합농장생산(농장생산+계약영농+수집)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유애라(2019)는 아세안 ODA 중점 협력국 현황 및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분석, 국제사회 및 한국의 ODA 지원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중점 협력국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6개 ODA 중점 협력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상위 4위 공여국으로 2015년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대규모

지원 이후 지원규모가 급감되었으나 2017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였고, 라오스에 대한 지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물 공급 및 위생, 농업, 에너지 분배, 보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내 ODA 중점 협력국 지원 전략으로 1)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 최빈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ODA 위주로 추진하며, 중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나 개발금융 등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라오스는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식 국가 명칭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으로 전체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1.1배인 23.6만 ㎢이다.

라오스의 지형은 총면적의 70% 이상이 고원 및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의 40%는 농지, 목초지, 삼림,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부 및 남부 지방을 비롯하여 캄무안(Khammouane)주 대부분은 산악지대이며, 인구의 60%는 저지대 및 메콩강 유역과 지류에 거주한다.[1)]

1) U.S. Library of Congress(http://countrystudies.us/laos/45.htm, 검색일: 2020. 4. 10.).; World Population Review(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laos-population/, 검색일: 2020. 4. 13.).

라오스에는 동남아 내륙에서 가장 큰 강인 메콩강이 태국과의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고 국토 길이는 1,800㎞로 메콩강 총 4,350㎞의 41% 이상을 차지하는 최장 관통국이다. 메콩강은 라오스의 생명선으로 수산물 및 수력 공급, 운송, 농업 등에 영향을 미치며 메콩강 지류에는 수력발전 시설이 위치하여 태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2)]

라오스의 인구는 2019년 3월 기준, 총 737만 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사바나켓(Savannakhet)주로 10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사바나켓주에는 라오스의 대표적인 경제특구(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 SEZ)가 위치하고, 동쪽의 베트남, 중앙의 라오스, 서쪽의 태국을 연결하는 9번국도(East-West Corridor: EWC)와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13번 국도의 교차지점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무역과 서비스의 허브이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은 92만 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그다음으로 라오스 최남단에 위치한 참파삭(Champasak)주에 74만 명이 거주한다. 참파삭주는 남부 지방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이며 농업, 상업,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다.[3)]

라오스의 행정구역은 17개 주와 1개 특별시(Vientiane Municipality)로 구성되고,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시(나콘)와 141개 군(므앙), 11,640개의 촌(반)이 존재한다. 라오스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 2월 제9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삼상정책(Three-build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 정책은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 정부 수립 이래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있다. 삼상정책의 핵심내용은 3개의 중추적 요소로 주정부(Provinces), 군정부(Districts), 마을(Villages) 단위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행에 대한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군)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

2) General Information about Lao P.D.R.(http://www.seasite.niu.edu/lao/Lao_overview/general_lao.htm, 검색일: 2020. 4. 13.).

3) City Population(https://www.citypopulation.de/en/laos/cities/, 검색일: 2020. 4. 13.).;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brd/m_1873/, 검색일: 2020. 4. 13.).

립 역량 강화, 행정서비스 및 농촌개발능력 향상,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라오스는 열대성 몬순기후로 평원지대는 열대기후, 북부지방과 산악지대는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은 29℃이며 최고기온은 가장 더운 4월에 평균 39℃이고, 중남부 지역은 40~42℃, 북부 지역은 45℃까지 올라간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로 구분된다. 건기는 다시 겨울몬순(11~2월)과 여름몬순(3~4월)으로 구분되어 여름몬순 기간에는 평균 30~32℃로 덥지는 않으나 습도가 높은 편이다. 강우량은 평원지대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1,200~2,200㎜를 기록하며, 북부 산악지대에는 3,000㎜로 호우를 동반한다. 우기에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45㎜이며, 건기 중 12월과 1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참파삭주의 볼라벤고원(Bolaven Plateau)으로 매년 3,700㎜의 강우량을 기록한다. 볼라벤고원은 해발 1,000~1,350ｍ 사이이며 시원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커피나무 경작이 활발하다. 평균적으로 비엔티안은 1,700㎜, 사바나켓주 1,440㎜, 루앙프라방(Luangprabang)은 1,360㎜의 강우량을 보인다.[5)]

4)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brd/m_1873/view.do?seq=1345657, 검색일: 2020. 4. 13.).

5) 외교부 동남아2과(2019); U.S. Library of Congress(http://countrystudies.us/laos/45.htm, 검색일: 2020. 4. 10.).

〈그림 2-1〉 국가지도

자료: FAO 웹사이트.[6]

6) FAO(http://www.fao.org/countryprofiles/en/, 검색일: 2020. 6. 26.).

〈표 2-1〉 국가개황

구분	내용
국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면적	236,800만 ㎢(한반도의 약 1.1배)
수도	비엔티안(인구 92만 명)
위치	• 북위 14.1-22.3°, 동경 100-108"에 위치한 내륙국가 - 동쪽 베트남(2,069㎞), 서쪽 태국(1,835㎞), 남쪽 캄보디아(435㎞), 북쪽 중국(505㎞) 및 북서쪽 미얀마(236㎞) 등 5개국과 접경
인구	• 737만 명(2019년 3월) - 남성: 3,680,206명(49.9%) - 여성: 3,692,317명(50.1%)
행정구역	17개 주, 1개 특별시로 구성
민족(인종)	• 라오룸(60%), 라오퉁(30%), 라오숭(10%) 등 공식 종족 50개(2018.12. 라오스 국회 채택) - 라오룸: '저지대 라오족'이라는 뜻으로 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에서 논농업에 종사 - 라오퉁: '구릉지 라오족'으로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화전농에 종사 - 라오숭: '산악지 라오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라오스 내전 당시 비엔티안 정부 측과 혁명군 측으로 나뉘어져 많은 수가 희생. 라오숭 중 가장 수가 많은 몽족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국에 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전후 상당수 해외로 망명
언어	라오어(공용어)
종교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정부형태	인민민주공화제
정부 수립일	1975년 12월 2일
의회	• 의회형태: 단원제 • 국회 149석(임기 5년) • 유일정당(라오인민혁명당) 독재체제

자료: 외교부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7)]

7) 외교부(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 검색일: 2020. 3. 5.).

1.2. 정치

1.2.1. 정치체제 및 변동

1893년부터 1907년 사이에 맺어진 프랑스-태국 간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자국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인 현재의 라오스를 지배하게 되었다. 라오스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잠시 일본의 군사 점령하에 놓였으며, 1954년 라오스와 프랑스 간의 제네바 협약에 의해 완전히 독립하였다. 독립 후에도 라오스 내 좌파, 우파 및 중립파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전이 이어졌다.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라오애국전선은 비엔티안 정부를 장악하였고, 같은 해 12월 2일 개최된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왕정이 공식 폐지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후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 서기장 겸 총리인 카이손 폼비한(Kayson Phomvihane)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정부는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제도 및 세제 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인투자 유치법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12-13).

1991년 8월 헌법이 채택되고, 이 헌법에 따라 1992년 12월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라오스 헌법의 기본 이념은 1991년 3월 실시된 제5차 전당대회의 노선을 따라 정치적으로는 일당제를 유지하고 경제면에서는 시장 경제와 개방경제를 지향하며, 기본적 인권의 존중,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결사의 자유, 교육과 취직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이 중앙위원회의 최고위 결정 담당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라오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자치권 및 예산 권한을 보장하였고,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3월 총선과 함께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

부는 과거 총리실이 직접 관할하던 농촌개발, 경제특구, 빈곤 퇴치, 마약 통제, 비즈니스 개선 등의 업무를 부처별 권한을 조정하여 각 유관 부처로 위임하고, 책임소재를 일원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14-23).

2019년 7월 현재 총 143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세부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모든 입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25).

1.2.2. 대외관계

라오스는 내륙국가로서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지역 외교를 추진 중이며, 아세안 정상회의 및 각종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입지와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오스의 대외관계 기조는 '평화·자주·우호·협력 관계 유지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하에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는 1975년 베트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공산화에 성공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베트남·태국·중국 등 주변국과 균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발원조 공여국과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ODA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7년 아세안 가입 이래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30).

라오스는 베트남과는 1950년대 독립투쟁 시기부터 1975년 공산혁명까지 베트남 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인 '특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베트남은 라오스에 있어 같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이며, 후발 아세안 가입 국가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당·정 고위인사 교류 및 민간교류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에는 베트남 국가

주석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방문하여 후아판(Houaphan)주에 농업기술서비스센터 설립하고, 전력 개발 및 광산 분야의 협력과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하틴성(Hatinh) 붕앙항 연결(총 연장 555㎞: 라오스 452㎞, 베트남 103㎞) 철도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등 9개 협력 사업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31-33).

태국과는 역사·경제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 중의 하나로 라오스의 수입 물자 및 일반 생필품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태국 동북부의 이산(IPA) 지역과는 민족적으로 연원이 같고, 동일 어족에 속해 있어 문화적으로 태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태국과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 간에 소규모 충돌이 지속되는 등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라오스가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메콩강 국경 획정 문제, 경제 원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양국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라오스와 태국 간 메콩강을 가로질러 국가 간 연결된 '우정의 다리'를 통해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제6의 우정의 다리' 건설을 계획하였다. 라오스와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태국 농카이(Nongkhai)와 라오스 타나랭(Thanaleng) 구간을 연결(3.5㎞)하는 사업이 2009년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비엔티안~중국 국경 고속철도 사업이 완공될 경우 라오스는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 이동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34-35).

중국과는 1979년 중국-베트남 분쟁 시 라오스가 베트남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으나 분쟁 종료 후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면적 협력 관계'라는 구호 아래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다. 중국은 라오스 지도부 내 친중 인맥 및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1989~2017년간 누적 투자액 66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2019년은 라오스-중국 간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향후 5년간 정치, 경제, 안보, 상호 문화 교류 및 녹색성

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라오스-중국 운명공동체 구축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이익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인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보텐(Boten) 연결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과 중국과 접경 지역인 보텐 경제특구 건설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라오스와 중국과의 관계는 내륙연계국을 표방하고 라오스와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35-38).

1.3. 경제

라오스는 매년 평균 6.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동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201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화 2,670달러인 최빈개도국이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림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한다.

라오스 정부는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 탈피와 2030년 중진국 진입을 기본 경제 운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업·임업·공업 서비스의 균형 발전, 시장경제화의 지속적 추진,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 유치 및 원조 확대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법, 기업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여 '타국에 갇힌 국가(Land-Locked Country)'가 아닌, '타국을 연결하는 국가(Land-Linked Country)'임을 천명하고,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50, 57-58).

〈표 2-2〉 4대 경제 기조

구분	내용
산업 및 기업 육성	- 2003년부터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12개 주에 16개 특별경제구역을 설치 - 2016년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및 토지임차료 면제 실시 - 2018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 및 촉진에 관한 총리령'을 발표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화 보장
내륙 물류 허브 구축	- 내륙국으로서 물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고속도로, 3개 철도, 8개 내륙항, 3개 물류기지 건설 추진
PPP를 통한 인프라 개선	-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 추진을 통한 인프라 개발 비용 충당
농업 및 농촌 개발	- 가구소득 증대 및 상업형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 친환경 영농업, 농산물 가공산업 등에 대해 최대 15년간의 법인세 및 토지임차료 면제

자료: 외교부 동남아2과(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3.1. 경제 성장

라오스 정부는 1986년 신경제제도(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한 이후, 민간 기업을 장려하기 시작하여 1988~2008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1년에는 금 생산량의 감소와 구리 가격의 하락세가 있었으나 수력발전 생산량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지속적인 수력발전 분야의 외국인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성장,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2017년부터 성장률은 6%대로 둔화되었고, 2018년에는 광물자원 수출, 인프라 개발 등의 외화 투자 유치가 있었으나 농업 분야의 자연재해로 6.3%를 기록했다. 라오스의 경제 성장은 수력발전 및 광업 등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와 해외 개발 원조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성장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8] 특히, 관광업은 광업·수력 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8) CIA(https://www.cia.gov/index.html, 검색일: 2020. 4. 15.).; KOTRA(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64, 검색일: 2020. 4. 18.).;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brd/m_20221/view.do?seq=1344729&srchFr= &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0. 4. 13.).

최근 관광업의 급격한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외국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20%가량 증가해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객이 93%(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국가별로는 태국(1,929,934명), 베트남(867,585명), 중국(805,833명), 한국(174,405명), 미국(49,178명) 순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다. 라오스는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건설 기업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보케오(Bokeo)주 후아싸이(Huayxai)시 메콩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면세점을 2017년부터 건설 중에 있다.[9)]

〈표 2-3〉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국내경제	GDP	억 달러	159	171	181	191
	1인당 GDP	달러	2,325	2,455	2,566	2,670
	경제성장률	%	7.0	6.8	6.3	6.4
	재정수지/GDP	%	-5.1	-5.5	-4.4	-4.3
	소비자물가상승률	%	1.8	0.7	2.0	3.1
	정부채무/ GDP	%	54.2	55.8	57.2	58.0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K	8,179.3	8,351.5	8,489.2	8,699.2
	경상수지	백만 달러	-1,385	-1,260	-1,430	-1,445
	경상수지/GDP	%	-8.7	-7.4	-7.9	-7.6
	상품수지	백만 달러	-1,128	-794	-869	-921
	수출	백만 달러	4,245	4,873	5,295	5,798
	수입	백만 달러	5,372	5,667	6,164	6,71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78	1,162	873	732
외채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6,610	15,806	16,833	17,214
	총외채잔액/GDP	%	104.4	92.6	92.9	90.0
	단기외채	백만 달러	710	591	629	630
	외채상환액/ 총수출	%	17.7	17.7	18.6	20.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9) 외교부 동남아2과(2019: 72).; 온라인뉴스팀. 2019. 3. 6. "中해성그룹, 라오스에 10억불 투자 '세계 최대 국제 면세점' 건설."『SBS CNBC』.

한편,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내륙연계국가'를 표방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고속철도 인프라 개방 등으로 2016년 이후 정부 부채가 상승했으며, 매년 GDP 대비 4~5%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 농산물 수출량 감소, 광물 수출 둔화 등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분야별 역량 강화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의 개혁조치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48).

1.3.2. 경제 구조와 교역

라오스의 산업별 비중은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이 41.2%이며, 제조업이 31.5%, 농업이 15.3%이다. 서비스업은 금융, 도소매, 차량수리 분야가 각각 19%,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수도, 건설이 19%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10]

〈표 2-4〉 산업별 경제 성장 및 구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분야별 경제 성장					
농업(%)	3.56	2.76	2.87	1.27	1.30
제조업(%)	7.01	12.0	11.61	7.81	6.30
서비스업(%)	8.02	4.65	4.41	6.89	7.40
경제구조					
농업(%)	17.8	17.6	17.2	16.2	15.3
제조업(%)	28.8	27.7	28.8	30.9	31.5
서비스업(%)	44.2	44.2	42.5	41.5	41.2
경제 성장 기여도					
농업(%)	0.61	0.46	0.46	0.19	0.19
제조업(%)	2.26	3.86	3.91	2.75	2.25
서비스업(%)	3.29	1.92	1.78	2.72	2.94

자료: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1]

10)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8241, 검색일: 2020. 4. 18.).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7억 달러의 총교역량을 기록한 후 2년간 감소세였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주요 수출품은 전기, 금, 동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기계류, 중류 등이다. 전통적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2018년 전체 교역의 약 90%가 3국(태국 52%, 중국 25%, 베트남 14%)에 집중되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출입국이 수출입에 따른 관세 및 여러 규제들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주변국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 제조 공장 시설이 열악하여 향후 베트남, 태국, 중국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48, 54; 김동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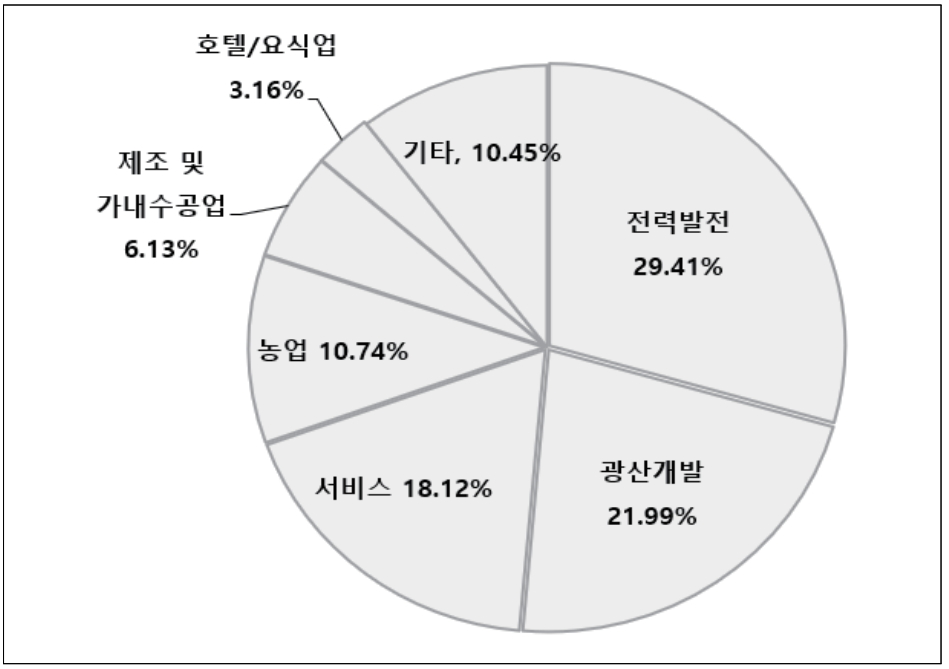
1.3.3. 외국인투자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이 상위 5개국이며, 198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투자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231억 달러 총 3,415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투자 비율은 전력발전이 29.4%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고, 광산개발 21.9%, 서비스 18.1%, 농업 10.7%의 순이다.[12)]

11)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brd/m_20221/view.do?seq=134472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0. 4. 13.).

12) IPD(http://www.investlaos.gov.la/index.php/resources/statistics, 검색일: 2020. 3. 24.).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별 비율(1989~2018년)



자료: IPD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3]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경제특별구역(SEZ)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종합개발을 위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과 단지 내 특정 사업이 지정된 경제특정구역(Specific Economic Zone) 및 기타 개발단지 등으로 분류되며, 현재 총 12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11개는 운영 중이며 루앙프라방 경제특구 1개는 건설 중이다. 경제특구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9년 8월 기준,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총 712개이며 대표적인 기업은 Nikon(일본), Essilor(프랑스), Toyota(일본), Polycom(미국)이 있으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등이 경제특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수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비자발급 편의 제

13) IPD(http://www.investlaos.gov.la/index.php/resources/statistics, 검색일: 2020. 3. 24.).

공, 저렴한 인건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특구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하고 싶은 한국 기업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 전자부품 제조,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기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업용 건물 개발, 부동산 및 관광단지 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14)]

이 밖에도 라오스는 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장려산업을 명시하고 있는 바, 농림업 분야의 장려산업으로는 첫째, 청정하고 무해한 농업, 종자 생산, 동물 사육, 산업 농장, 산림개발,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 농촌개발 및 빈곤 퇴치 촉진 활동, 둘째,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 농업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업, 셋째, 국산품 및 해외 유명 상표를 유치한 현대식 상업지구와 라오스 공산품, 수공예품 및 농산품 판매를 위한 전시장 및 상설시장 등이 있다.[15)]

1.3.4.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라오스는 1973년 통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으며, 1992년부터 한국 기업 및 개인 등이 라오스 진출을 시작하였다. 1992년 최초 투자 이후 2018년까지 총 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지 법인 수는 2018년 기준 144개의 법인, 지사 및 지점 등이 설립되었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80).

한국의 對 라오스 수출은 2010년 10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2012년 6.8%, 2013년 13.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소 증감을 나타냈다. 라오스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에 따른 대외 시장 개방 가속화와 양국 수교 이래 라오스 대통령의 첫 방한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9.2%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회복되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레일 및 철 구조물 등이며, 라오스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세 인상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16)]

14)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6781, 검색일: 2020. 4. 18.).
15) IPD(http://www.investlaos.gov.la/index.php/resources/statistics, 검색일: 2020. 3. 24.).

〈표 2-5〉 한국-라오스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금액	187	156	170	126	92	84
	증감률	13.3	-16.6	9.2	-25.8	-27.1	-8.7
수입	금액	12	18	28	23	27	30
	증감률	10	44.5	57.6	-20	20.2	11.1
무역수지		175	138	142	103	65	54

자료: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7]

한국의 對 라오스 수입액은 미미한 형편이나 주로 목재류, 계측제어 분석기, 유선통신기기, 커피, 임산 가공물 등을 교역하고, 의류 등 섬유류와 정밀화학 원료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표 2-6〉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품목명		2017	2018	품목명		2017	2018
1	자동차	50,332	36,098	1	목재류	8,342	13,385
2	자동차 부품	5,422	8,788	2	계측제어 분석기	1,965	3,853
3	레일 및 철구조물	8,231	4,900	3	유선통신기기	1,388	3,669
4	건설광산기계	1,038	4,385	4	칼륨비료	7,479	2,106
5	컴퓨터	102	2,965	5	산식물	70	1,814
6	농산가공품	1,009	2,143	6	곡실류	49	1,164
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733	1,888	7	기호식품	5,791	821
8	기타기계류	47	1,608	8	의류	319	613
9	석유제품	1,339	1,351	9	신변잡화	345	567
10	유선통신기기	112	1,261	10	알루미늄	60	502

자료: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18]

16)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20. 5. 20.).
17)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20. 5. 20.).
18)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20. 5. 20.).

한편, 라오스는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국가로 라오스 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2019년 9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 간 연계를 통한 개발협력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대표적으로 농업공동체 개발사업과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2014~2020년 비엔티안시와 사바나켓주를 대상으로 미화 1,455만 달러를 지원했고, 2020~2024년에는 참파삭·세콩(Sekong)·사라반(Saravane) 등 남부 3개 주를 상대로 9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메콩 지역은 선진국들이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 3,7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비엔티안시 사업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는 참파삭주에 5,300만 달러, 2016년부터는 5,800만 달러의 비엔티안시 2차 사업을 진행하였다.[19]

1.4. 사회

라오스의 인구는 2019년 3월 기준 총 737만 명이고 인구성장률은 1.53%로 인구의 절반 미만이 도시 지역 및 주변에 거주하며,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을 따라 위치해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2007년 54세에서 2017년 67.28세로 10년 사이에 13세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기인한다.[20]

19) 청와대. 2019. 9. 5. "한국 신남방-라오스 삼상정책 연계로 협력 증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라오스는 빈곤층 인구가 1993년 46.1%에서 2019년 22%로 감소하였다. 전기 사용 인구수 증가, 기술과 지식 향상, 토지 접근성 증대, 비농업 일자리 창출 등은 빈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분류한 최빈국(2017년 기준)에 속해있다.[21]

일반 국민의 위생 상태 및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아 사망률 및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22] 지표 기준으로 1,000명당 1세 이하 영아의 사망률은 49명이고, 5세 이하 아동은 63명이다. 기초 보건 지수인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2015년 기준 75.7%(도시 85.6%, 농촌 69.4%)이며 화장실, 상하수도 등 기초 위생시설을 기준으로 위생시설 보급률은 2010년 49%, 2012년 62%, 2015년 73%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23]

라오스의 학제는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7년이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률은 전국 평균 98.8%(남학생 99.6%, 여학생 98.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중학교 진학률은 약 34.7%로 현저히 낮다. 대학 취학률은 이보다 더 낮은 18.62%를 기록했으며, 2019년 기준 총대학(원)생 수는 3만 9,497명이다. 성인 문자 해독률은 2018년 기준 약 84%로 남성(89%)이 여성(79%)보다 높은 편이다(외교부 동남아2과 2019: 67-68).

20) World Population Review(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laos-population/, 검색일: 2020. 4. 13.).

21) World Bank(https://www.worldbank.org/en/country/lao/publication/drivers-of-poverty-in-lao-pdr, 검색일: 2020. 4. 22.).

22) 인간개발지수는 유엔개발계획이 각 국가의 교육 수준, 평균수명, 1인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가의 삶의 질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인간 개발의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23) 외교부 동남아2과(2019: 62).;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brd/m_1873/, 검색일: 2020. 4. 13.).

2. 농업 현황

2.1. 농지

라오스 국토의 70%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는 약 450ha이고, 전체 국토의 10%만 농업에 사용된다. 2015년 기준 관개 면적은 473,756ha이며, 전국 경작지의 31% 규모이다. 관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중부지역으로 전체 관개 면적의 54%가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쌀을 생산한다. 전체 관개 면적의 약 62%인 29만 3,536ha는 우기 시 작물 재배를 위해 사용되며, 약 38%인 18만 220ha는 건기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용된다(Sengsourivong 2019: 4).

〈표 2-7〉 농업면적 현황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토면적(A)	㎢	230,800	230,800	230,800	230,800	230,800	230,800	230,800
농경지 면적(B)	㎢	22,990	23,350	23,690	23,690	23,690	-	-
농경지면적 비중(B/A)	%	10	10.1	10.3	10.3	10.3	-	-
1인당 경작면적	ha	0.2	0.2	0.2	0.2	0.2	-	-
경작면적 비중 (국토면적 대비)	%	6.3	6.5	6.6	6.6	6.6	-	-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24]

라오스의 농지는 크기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쌀과 단기작물 및 환금작물 재배가 가능한 평야 지역이 200만 ha, 옥수수, 콩, 녹두, 과수, 산업 또는 상업 작물 재배에 적합한 완만한 경사의 심토 지역이 180만 ha, 소, 물소 등의 가축 방목에 적합한 천연 초지 지역이 65만 ha가 있다. 이 밖에도 114만 ha의 사바나 지역, 관목 산림 지역, 열대교목 산림 지역, 무입목지 등이 있다(MAF 2015a: 33).

지형별로는 평야 지역, 비평야 지역, 산악 지역, 고원 지역으로 분류된다. 평야

24)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9. 26.).

지역은 농업용수 이용 방식에 따라 천수답 농업과 관개 농업 지역으로 나뉘며, 면적 크기로도 구분된다. 천수답 농업 지역에서는 찹쌀을 일모작하고 농가의 주요 수입원인 비목재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 돼지, 가금류 등을 사육한다. 관개 농업 지역에서는 광주기 민감성(photoperiod sensitive) 쌀 품종을 이모작하고 건기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채소를 재배한다. 도심 인근에는 방목지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보다 사육되는 가축 수가 적고, 버펄로는 주로 쟁기질에 활용된다(Manivong 2020: 108).

평야 지역은 농지면적에 따라 소규모 평야(300~5,000ha), 중규모 평야(5,000~3만 ha), 대규모 평야(3만 ha 이상)로 분류된다. 소규모 평야는 대부분 해발 500m 이상의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고 12개의 평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2만 2,200ha이다. 이 중 농지는 1만 6,000ha로 논벼 면적이 2,700ha, 작물·과수 생산 면적이 9,200ha, 가축사육용 자연 초지가 400ha 있으며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3,500ha 분포되어 있다. 건기에는 구황작물인 토란, 땅콩과 마늘 등이 재배되고, 우기에는 고품질의 쌀을 경작한다. 중규모 평야는 해발 500~700m에 위치하며 사이아불리(Saybouly), 보케오, 비엔티안, 루앙남타(Luang Namtha), 오돔싸이(Oudomxay), 시엥쿠앙(Xiengkhouang), 루앙프라방 및 세콩의 9개의 주와 16개 군에 걸쳐있다. 16개 군의 총면적은 25만 2,800ha로 이 중 농지는 20만 8,800ha이다. 농지의 구성은 논벼 면적이 5만 1,400ha, 작물·과수 면적이 4만 6,300ha, 가축사육용 자연 초지가 2,100ha이며,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10만 9,000ha로 이루어 졌다. 건기에는 벼, 옥수수, 콩 등의 작물 재배에 적합하고, 우기에는 쌀 경작에 적합하다. 대규모 평야는 연 평균 2,500~3,000㎜의 가장 많은 강우량을 보이는 비엔티안 평야를 비롯하여 볼리캄사이(Bolikhamsay), 셋방파이(Xebangfai), 세돈(Xedon), 참파삭 및 아타푸(Attapeu) 등 7개의 평야가 있으며 총면적은 237만 600ha이다. 라오스 9개 주 51개 군에 분포되어 있고 저지대에 위치하여 온난한 기후를 보이며 관개 농업 시스템 개발에도 적합하다. 대규모 평야에는 총 120만 8,400ha의 농지가 있으며 그중 71만 8,200ha는 논벼, 12만 7,100ha는 작물·과수 생산을 위해 활용되고, 4,800ha의 자연 초지는 가축 사육을 위해 사용된다. 이외에

도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지가 35만 8,300ha 있으며, 이 지역은 건기에 관개가 가능한 경우 벼, 담배, 옥수수, 콩, 채소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고 우기에는 쌀을 경작한다(MAF 2015a: 34).

비평야 지역은 전국에 총 200만 ha의 농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평야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비평야 지역의 전체 농지 중 논벼 지역은 18만 2,500ha이며, 작물과 과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30만 4,400ha, 가축사육을 위한 자연 초지가 14만 7,300ha 분포되어 있다.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외에도 농작물 생산을 위해 개발될 수 있는 토지가 존재한다. 논벼 재배를 위해 확장 가능한 면적은 6만 5,000ha이며 작물과 과수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71만 7,000ha 있고,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약 136만 ha나 존재한다(MAF 2015a: 35).

산악 지역은 북부 및 베트남 국경에 접하여 메콩강의 수원지로 불린다.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밭벼를 재배해 왔다. 산악 지역의 농민은 천수답에 의존하여 영농활동을 하며, 쌀과 환금작물을 간작(間作)하고 돼지, 소, 가금류 등을 주로 사육한다.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과일나무가 재배되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옥수수, 상추, 겨자, 복숭아, 사과 등을 재배한다. 산악 지역의 농지 총면적은 90만 1,300ha이며, 그중 논벼 재배가 가능한 면적이 4,300ha, 작물과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24만 8,200ha, 가축사육을 위한 자연 초지가 48만 9,800ha 있다. 또한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농지가 15만 9,000ha 정도 있다(MAF 2015a: 36).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산악 지역에 다른 지역 주민이 이주함에 따라 화전의 휴지 기간이 점차 짧아져 식생이 파괴되고 작물의 평균 수확량과 토양의 비옥도가 낮다. 특히 화전은 다량의 목재 벌채로 인해 산림 및 생태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라오스 정부는 농지를 호당 3~4ha로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다년생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25]

25) 박시현(2014: 4-5).; New Agriculturist(http://www.new-ag.info/en/index.php, 검색일: 2020. 6. 27.).

라오스에는 볼라벤, 나카이(Nakai), 시엥쿠앙 등 3개의 고원이 있으며 5개의 주와 10개 군에 분포되어 총면적이 29만 1,900ha에 이른다. 고원 지역에서는 가정 소비를 위한 채소 재배와 가축사육이 이루어지며 커피, 차, 카다몬 등의 작물 재배가 화전 농업을 대체하고 있다. 가정 생계유지와 소득 창출에 소와 돼지, 가금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원 지역 농경지는 18만 5,100ha가 있으며, 논벼 재배를 위한 토지가 4,900ha, 작물과 과수 재배를 위한 면적이 15만 1,600ha이며 농경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가축사육을 위한 자연 초지가 9,900ha 있으며 수출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확대될 수 있는 농지가 1만 8,700ha 정도 있다(MAF 2015a: 35).

〈표 2-8〉 영농시스템

구분	영농시스템	특징
저지대	저지대 천수답	전통적인 찹쌀 품종의 단작 농가 수입, 가정 소비를 위한 버펄로, 소, 돼지, 가금류, 어류 및 비목재임산물(NTFP) 생산
	저지대 관개	개량종자 및 비료 사용 광주기 민감성 쌀 품종 이모작 도심 인근 채소 재배 목초지 부족으로 가축 사육률 저조(버펄로는 쟁기질에 사용됨.)
고지대	고지대 천수답	환금작물, 벼 간작 등 화전농업 낮은 고도에서 과일 나무종 재배 농가소득원: 돼지, 소, 가금류, 특히, 비목재임산물(NTFP)에 크게 의존
	산악지대	천수답 및 화전농업 옥수수, 상추, 겨자, 자두, 복숭아, 사과 등 온대 과수를 간작함.
평야	평야지역	화전농업을 대체한 커피, 차, 카다몬 재배 주요 소득원: 소, 돼지, 가금류

자료: Manivong(2020: 10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13년 기준 농가 호당 평균 농지 규모는 1.8ha로 비엔티안 평야와 북부 저지대의 평균 농지 규모는 2.0ha, 북부 고지대의 경우 1.6ha로 평균 농지 규모보다 낮은 수준이다. 라오스 농민의 97%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며, 전체 농가의 22%는 1ha 미만, 31%는 1~2ha 미만, 그리고 19%의 농가는 2~3ha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3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루앙프라

방주(41%), 사바나켓주(37%), 사이아불리주(35%), 사라반주(31%)이다. 한편, 평균 3%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라오스 전체 농가의 27%이다(김세원 외 2017: 63-65).

종합해볼 때 라오스는 농산물 생산 및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과 토지 활용의 잠재성은 충분하나 토지 사용은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산악 지대는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 수용력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산악 지대 관리와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지형과 토양 조건, 농업구조와 영농 방법에 따라 적절한 농지의 구획화 및 농촌 근대화가 필요하다.

2.2. 농업·농촌 인구

라오스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전체 인구의 약 67%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국가 노동력의 3분의 2인 약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표 2-9> 참조) 농림업의 GDP 기여 비중은 22%에 불과하다(IFAD 2018: 1).

인구밀도는 평균 31명(㎢당)으로 굉장히 낮으며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달러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급자족 농민이다(World Food Programme 2020: 8).

〈표 2-9〉 농업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	천 명	27,041	26,989	26,917	26,906	27,015	27,261	27,627
농업노동인구 비중	%	72.7	72.3	72	71.3	71	71	70.4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26]

농작물 생산량과 생산 면적 증가로 농업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농업인구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의 감소는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26)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9. 26.).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은 2010년 20%에서 2018년 23%로 증가하였다. 농업 노동력 감소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비엔티안 채소 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27]

저숙련 농촌 노동자들이 제조업 분야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도시와 인근 국가로 이주하여 농촌 지역의 노동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 인구의 증가율은 평균 3.5%인 반면 농촌 인구의 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표 2-10> 참조). 농촌지역 20~24세 청년층의 노동 참여율은 83%로 청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가공, 운송 및 무역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촌향도 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켰으며 교육 접근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28]

〈표 2-10〉 농촌 및 도시 인구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시	2,014	2,084	2,157	2,231	2,309	2,389	2,471
농촌	4,429	4,456	4,482	4,509	4,536	4,563	4,589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29]

여성은 농작물 재배, 제초, 수확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분에 기여하는 주요 행위자이다. 농촌 노동력의 54%를 차지하고 남성보다 주당 평균 9시간 더 일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대의 소수민족 지역에서 여성의 노동량이 높게 나타난다. 농촌 지역의 여성은 가계의 식량안보와 농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남성에 비해

27) Asianews(http://asianews.eu/content/more-people-abandon-farming-jobs-laos-67395, 검색일: 2020. 6. 30.).
28) World Food Programme(2020: 10-11).;EMC(https://emc-consulting.asia/2017/09/23/lao-pdr-labor-shortage/, 검색일: 2020. 7. 3.).
29)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농업 투입재, 농업 기술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치사슬 개발 및 시장 접근성을 높여 농촌 지역 여성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30]

2.3. 농업 성장과 교역

2018년 기준 농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전년도의 15.3%에서 0.8% 감소했다. 농업 분야의 수입 비중은 12.5%이며,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육성 정책 및 외국인투자로 인해 수출 비중이 2010년 7.5%에서 14%로 증가 하였다(<표 2-11> 참조).[31]

〈표 2-11〉 산업별 수출 비중

단위: %

구분	2010년	2017년
광업	42.8	24
제조업	12	17.3
농업	7.5	14
전기	12	22

자료: World Bank 웹사이트.[32]

2018년 기준 라오스의 농식품 총수출액은 4억 3,694만 달러이며, 총수입액은 약 9억 3,40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오스의 교역 구조는 부가가치가 낮은 채소, 곡물, 커피, 차, 향신료 등의 농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산동물, 곡물 조제품, 음료, 식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가별로 농식품

30) FAO Aquastat(2011).: Moglia et al.(2020).
31)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6065, 검색일: 2020. 6. 14.).
32) World Bank(https://www.worldbank.org, 검색일: 2020. 4. 22.).

최대 교역국은 중국과 태국이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고 대부분 과실 및 견과류를 수출한다. 태국과의 교역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으며 음료, 주류, 조제 사료 등을 수입한다. 라오스의 경제 성장과 동시에 농식품 교역도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비공식적인 국경 간 교역의 양도 상당한 상황이다. [33]

라오스 수출 전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34] 농업 분야의 총수출 잠재력은 6억 3,400만 달러로 약 22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수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세안(ASEAN) 회원국과 중국이며 유기농산물, 카사바, 커피 등을 유망작물로 선정하였다. 라오스는 제한된 국가 면적과 노동력, 해상 접근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상품의 가격 경쟁과 상업 작물 대량 수출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작물 재배 시 비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및 과일 등의 유기농 재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오스의 차(茶)는 유기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품종들이 있으며 유기농 차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 유럽 수출은 높은 운송비용과 현지 취향에 맞는 품질 관리 및 포장 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카사바의 경우 뿌리가 수출 잠재력이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이 잠재적 수출 독점국이다. 이 국가들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55%를 차지하여 3억 5,000만 달러의 수출 잠재력을 가진다. 카사바는 전분 형태로 인근 국가에 수출되며 자동차 연료 또는 후방산업에 사용되는 작물이다. 커피의 경우 원두의 수출 잠재력이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며 농식품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라오스 북부지방에서 재배되는 고품질의 커피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아세안 국가 및 중국의 비교적 잘 구축된 커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품질 관리와 가공능력 부족, 로스팅 기술 부족, 인증 문제 등으로 유럽보다 인증기준이 낮은 중국에서 덜 정제된 커피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라오스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농작물은 코코아 콩, 캐슈넛 껍질, 홍차 등이 있다. 라오스에서 코코아 콩과 캐슈넛을 재배하기에는 습도가 부족한 자연환

33)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6065, 검색일: 2020. 6. 14.).

34) International Trade Centre(2019).

경 조건으로 한계가 있으며 대형업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9).

라오스는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하여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농식품 생산경쟁력이 낮아 가공 인프라 시설의 확대와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 개발을 통해 농식품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4. 농업 생산

2.4.1. 곡물

가. 쌀

쌀은 전체 농작물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식단 구성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오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16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Welcher 2019: 4). 특히, 정부는 수출용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도입한 후 자급자족 생산에서 상업화를 위한 쌀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쌀 생산량의 약 80%는 찹쌀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백미와 향미를 생산하고 평균 쌀 농장의 규모는 1~2ha의 소규모이다. 농민은 매년 농촌지도소나 지역의 제분소에서 종자를 제공받아 경작하며 생산한 쌀을 제분공장이나 중개인에게 직접 판매한다. 라오스에는 2만개가 넘는 쌀 제분 공장이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가용용량이 적다(Welcher 2019: 4).

쌀 생산은 주로 저지대에서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11%만 고지대에서 생산된다(Welcher 2019: 4). 저지대에서는 평균 1ha당 4톤의 쌀을 생산하며, 고지대에서는 2톤 정도를 생산한다(Sengsourivong 2019: 4).

산악 및 고원 지역에서는 재래종 벼 재배와 같은 상업용 쌀 생산이 장려되고 있다. 특히 시엥쿠앙주와 후아판주에서 상업용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면적 1만

3,000~1만 5,000ha에서 4만~5만 톤가량 생산된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여 청정농산물 생산기준(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및 Organic Agriculture: OA)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인증에 부합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쌀을 생산하고 있다(MAF 2015a: 57).

평야지역에서는 국내 도정 공장에 가공원료 공급과 수출을 위해 상업용 쌀을 생산하며 비엔티안, 볼리캄사이, 셋방파이, 셋방하이엥(Xebanghieng), 세돈, 참파삭 및 아타푸 등 7개 대평야에서의 쌀 생산증대를 목표로 65만~80만 ha에서 300만~330만 톤의 논벼를 생산한다. 이 평야 지역은 관개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건기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한발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이 낮다. 특히 농업 및 관개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용 쌀 생산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약 20만~25만 ha에서 110만~130만 톤 정도의 논벼를 생산하며, 농업기술센터 지도아래 GAP를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생산자 단체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쌀이 출하된다. 또한 파종, 수확, 가공, 포장 및 저장 등에 농기계 사용이 용이하고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쌀을 생산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중소규모 평야의 경우 루앙남타주에 위치한 벼 종자센터를 지정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벼 종자 보급을 늘리고, 중국 수출용 상업용 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MAF 2015a: 57).

〈표 2-12〉 쌀 공급 현황

구분	2016/2017	2017/2018	2018/2019
도정쌀 생산량(단위: 1,000ha)	1,469	1,550	1,260
총 유통량(단위: 톤)	1,970	2,020	1,770

자료: Welcher(2019: 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요경작 시기는 우기인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통 이 기간 동안 연간 쌀 생산량의 90%가 생산된다. 우기의 쌀 생산량은 몬순의 강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건기인 12월부터 4월까지는 관개를 통해 경작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부족으로 전체 10%만 관개를 통해 쌀 생산이 가능하다(FAO and WFP 2020: 10).

2019년 기준 우기의 경작 면적은 87만 7,600ha이고, 수확 면적은 75만 4,500ha로 수확면적은 전년 최저치 대비 3%가 낮고, 지난 5년 평균 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생산량은 2016년 약 414만 톤을 생산했으나 2018년에는 358만 톤으로 14% 감소했다(<표 2-13> 참조). 주요 쌀 생산 지역은 메콩강을 따라 위치한 비엔티안, 캄무안, 볼리캄사이, 사바나켓, 사라반, 참파삭주이다. 특히 캄무안 지역은 도정된 쌀을 비엔티안으로 보내는 주요 공급지이자 쌀 수출 지역으로 연간 8만 ha에서 약 35만 톤의 벼를 생산하여 전체 지역 쌀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8년 남부와 중부의 캄무안 및 사바나켓 지역의 홍수와 북부지역의 가뭄 및 산사태 등의 피해로 약 12만 3,000ha의 손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요 경작지의 16%가 손실되었으며, 저지대 경작 면적의 범위를 줄였다(FAO and WFP 2020: 21).

〈표 2-13〉 쌀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확면적	933,767	891,190	957,836	965,152	973,327	956,134	848,174
생산량	3,489,210	3,414,560	4,002,425	4,102,000	4,148,800	4,039,779	3,584,700

자료: FAO(2012~2018).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35]

라오스의 쌀 생산량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표 2-14> 참조). 재배 과정에서 관개 접근성이 낮고 특히 고지대 또는 산악 지역은 저지대보다 관개 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벼 품종의 질이 낮고, 비료 사용 등의 농업 투입물이 적어 쌀 수확량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 기술의 부족으로 인접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보다 도정률이 낮다. 정부는 농민에게 건기 생산량 확대를 장려해오고 있으나 농민들은 기존 인프라 수리와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이와 함께 고지대는 쌀 재배의 수익성이 낮아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높은 운송비용으로 개량종자 구매가 제한적이다. 낮은 품질의 종자는 수확량을 줄이고 도정 속도를 늦춘다(Sengsourivong 2019: 4).

35)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표 2-14〉 라오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쌀 면적 및 생산량

구분	2005년 면적(ha)	2014년 면적(ha)	증감(%)	2005년 생산(톤)	2014년 생산(톤)	증감(%)
라오스	736	958	30	2,568	4,002	56
캄보디아	2,414	2,856	18	5,986	9,324	56
인도네시아	11,839	13,797	17	54,151	70,846	31
미얀마	7,384	6,790	(8)	27,683	26,423	(5)
필리핀	4,070	4,739	16	14,603	18,967	30
태국	10,244	10,664	4	30,291	32,620	8
베트남	7,329	7,826	7	35,832	44,974	26

자료: ADB(2018: 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에 따라 농림업부는 신품종 재배 장려를 위해 1,300개에 이르는 벼 생산자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건기 시 100% 우수개량 품종 공급을 목표로 한다. 종자 외에도 비료사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화학비료,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40%에 달하고 농기계의 사용도 지난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형 입식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에 달한다(MAF 2015a: 8).

나. 옥수수

옥수수는 전체 농작물 수확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며 쌀 다음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주로 북부 지방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상업용 농작물이며 식단에는 사용되지 않고 가축 사료로 생산하여 수출한다. 재배되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계약재배로 생산되며 99%는 태국, 베트남 및 중국으로 수출된다. 최근에는 중국 바이어들이 높은 가격과 생산기술 전수 등의 전략으로 옥수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36]

옥수수는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으로 재배되며 일반 농민은 일모작으로 우기에 재배하고, 관개시설을 갖춘 농민은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하다. 보통 해발 1,000m

36) Greenpeace(https://www.greenpeace.org/southeastasia/publication/4117/maize-land-use-change-and-transboundary-haze-pollution/, 검색일: 2020. 7. 15.).; GIZ(2017: 108-111).

이하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에 경작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5월 말에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여 4개월 동안 심고 수확한다(GIZ 2015: 5).

2000년부터 옥수수 면적과 옥수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55만 톤의 기록적인 생산량을 나타냈다(<표 2-15> 참조). 이는 하이브리드 품종 개발 기술의 도입과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및 국경 간 무역 개방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 옥수수의 대규모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생산을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 2018년에는 약 98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여 전년 대비 약 18%가 감소했다(<표 2-15> 참조). 2019년에는 북부지방의 가뭄과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의 확산으로 옥수수 잎과 줄기 등을 갉아 먹어 수확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됐다(FAO and WFP 2020: 26).

〈표 2-15〉 옥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확면적	196,815	212,030	243,385	254,025	258,910	207,190	165,620
생산량	1,125,485	1,214,085	1,412,440	1,516,250	1,552,360	1,192,525	981,680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37]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은 북부 지역으로 사이아불리, 보케오, 오돔싸이, 시엥쿠앙, 루앙프라방, 후아판, 비엔티안, 루앙남타 등이 있다. 이 중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이아불리 29.2%, 오돔싸이 18.8%, 보케오 10.2%이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전체 수확량의 53.4%를 차지하고, 전체 생산량의 58.2%에 육박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국내 가공과 수출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 단체와 기업은 이 지역에 투자하여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시설, 창고 및 저장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수확 후 손실을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부 지역에서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한 하이브리드 품종을 사용하고 있다. 평야 지역에는 오

37)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래전부터 옥수수를 대규모로 재배해 온 비엔티안 평야와 참파삭, 세돈 등이 주요 옥수수 생산지이다(MAF 2015a: 57-58; GIZ 2015: 4).

옥수수 생산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사이아불리 지역의 옥수수 가치사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료 및 살충제와 같은 투입재의 품질이 낮고, 농민은 높은 농기계 대여 비용으로 옥수수 경작 또는 수확에 사용되는 기계를 최소화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확 후 건조, 가공 및 저장시설의 부족과 옥수수 생산과 가공에 대한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민에게 제공되는 농업 지식과 정보, 농촌지도 훈련 및 영농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가공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공 분야의 지원을 통해 옥수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 신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농민의 가공 기계 구매율을 높이고, 구매 기계 종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공기술에 대한 교육 및 수요가 높은 중국의 품질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옥수수 판매 가격은 주로 중국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GIZ 2017: 108-111).

최근에는 옥수수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민과 도매상은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카사바, 아마란스와 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옥수수 재배 지역이 감소하고 있다(GIZ 2017: 108-111).

다. 카사바

라오스에서 '만똔(Man Ton)'으로 알려진 카사바는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용 농작물로 산악 및 고원지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작물이다. 최근에 옥수수와 콩의 대체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카사바는 척박한 토양과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열대작물이며, 가뭄 저항성이 높고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투입량으로 높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고 경작 방법이 용이하다(Howeler 2010: 2-3).

카사바는 전분, 감미료,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며 가축 사료 및 산업 가공에 활용되고 있어 수출용 환금작물로 변화되었다. 카사바 뿌리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20%의 녹말을 함유하고 있고 카사바 잎은 높은 단백질을 함량하여 주로 식용과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카사바 껍질은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며 식용 외에도 화장품, 접착제, 직물 등의 원료로 활용된다. 특히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로 전 세계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카사바 재배면적은 2012년 4만 3,000ha에서 2018년 7만 1,000ha로 급격히 증가했다(<표 2-16> 참조). 생산량은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6년 241만 톤으로 가장 생산량이 높았으며, 2018년에는 6% 감소한 227만 톤을 생산했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카사바 녹말칩과 건조칩 가공공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자는 베트남, 태국 및 중국이다(FAO and WFP 2020: 27-28).

〈표 2-16〉 카사바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확면적	43,975	45,185	60,475	75,465	75,810	70,930	71,010
생산량	1,060,880	1,254,188	1,629,805	2,382,478	2,410,000	2,277,050	2,279,030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38]

카사바의 주산지는 산악 및 고원지대에 위치한 루앙프라방주의 팍셍(Pakxeng), 비엥캄(Viengkham), 푼콘(Phounkhone)과 시엥쿠앙주의 펙(Paek), 팍사이(Phaxay), 비엔티안주의 사나크함(Xanakharm), 푸앙(Feuang), 힌허브(Hineherb), 볼리캄사이주의 캄쿠스(Khamkeuth), 사바나켓주의 세폰(Sepone), 농(Nong), 사라반주의 라오응암(Laognam), 타오이(Ta Oi) 등이다(MAF 2015a: 58-59).

라.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라오스 내 설탕 공장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 재배가 장려되는 작물 중 하나이다. 사탕수수는 주로 설탕 가공 공장과 연계되어 생산되며, 가공 부산물은 비료나 재생에너지를 위한 제품 생산에 이용된다(MAF 2015a: 58).

38)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사탕수수의 주요 재배 지역은 사바나켓주의 사이아불리, 앗사팡통(Atsaphangthong), 참폰(Champhone), 파란싸이(Phalanxay), 쏭불리(Xongbouly), 우돔폰(Outhumphone), 볼리캄사이주의 팍산(paksan), 볼리칸(bolikhan), 아타푸주의 포우봉(phouvong), 사이세타(Saysetta), 싼사이(XanXay) 및 세콩주의 라만(Lamam) 등이 주산지 이다(MAF 2015a: 58).

〈표 2-17〉 사탕수수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확면적	20,490	14,270	34,070	36,130	36,180	29,090	30,555
생산량	1,055,675	865,130	1,840,465	2,018,655	2,019,000	1,764,390	1,834,525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39]

사탕수수는 10월부터 1월 사이에 심고 재배되며 수명 주기는 3년이다. 재배 후에 농민은 밭을 태워 오래된 잎을 제거하고 오이, 땅콩, 수박, 호박과 같은 환금작물을 순환 재배한다. 농민은 주로 설탕 공장과 계약농업을 통해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계약농업은 '2+3', '1+4'와 '5+0'의 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2+3'은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토지와 노동력을 농민이 제공하고 계약을 맺은 회사는 종자, 비료, 농기계, 운송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1+4'는 토지만 농민이 제공하고 이 외의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모든 투입재를 회사에서 제공하다. '5+0'는 농민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한다(GIZ 2017: 142).

계약농업이 활발한 지역은 사바나켓으로 이 지역에는 Mitr Lao와 Savansugar 등 2개의 대형 설탕 공장이 있다. 태국 Mitr Phol 그룹이 소유한 Mitr Lao는 2005년 사바나켓 지역에 설립되어 설탕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태국과 유럽으로 수출한다. 이 공장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1만 ha의 면적을 양도받았으며 40년 동안 유효하다. Mitr Lao는 연간 50만 톤의 사탕수수를 분쇄하여 15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한다. Savansugar는 5,000ha의 부지에서 연간 60만 톤의 사탕수수를 수확한다. 이 공장들은 농민과 계약을 맺고 농민에게 종자, 비료, 제초제, 농기계 등을 제공

39)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하고 농지 개간, 파종 및 수확 시기·방법 등을 교육한다. 농민은 계약농업으로 소득이 증가되고, 농장 관리 기술을 배우는 등 농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따라 사탕수수의 가치사슬은 농민과 대형 다국적 기업으로만 구성되며, 기업은 생산가격과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우위를 차지한다(GIZ 2017: 144; Insixiengmai 2017: 1).

계약농업은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사탕수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제약이 존재한다. 농민은 종자 및 비료의 높은 구입비로 인해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신용(credit)을 구입하여 투입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환이자율이 6%로 높아 이는 농가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높은 노동비용과 제초제 보호장비 구입비가 발생하며, 대부분의 농가는 사탕수수 외에 소를 길러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탕수수 농가의 소 피해로 인한 울타리 설치에도 부담이 크다. 기업은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에 대한 교육을 계약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학교에서부터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화학비료의 경우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1ha당 약 0.3톤의 화학비료가 필요하여 연간 7%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긴밀한 농장 관리가 요구되고, 생산품질과 생산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Phoumanivong 2013).

마. 커피

라오스는 커피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커피 가공업체 및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커피산업은 라오스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상위 10위 산업 중 하나이며 2017년 총 4만 7,500자루(1자루=60Kg)를 생산하여 수출액이 1억 1,000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된 수치이며,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은 베트남 연간 커피 생산량의 1.6% 수준으로 미미한 수치이다.[40]

라오스 커피의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으로 2017년 기준 5,856만 달러의 커피를 수출하여 전체 커피 수출량의 43.6%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제6위 수출국으로 수출액은 571만 달러이다.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종은 로부스타(Robustas)로 전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저가의 품종이다. 로부스타는 수출용 인스턴트 커피믹스로 활용되며, 로부스타 다음으로는 아라비카(Arabicas) 품종을 많이 생산한다. 베트남은 아라비카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커피 제조 회사들의 경우 저렴한 로부스타 품종을 수입하여 자국의 커피와 섞어 인스턴트 커피로 제조한다.[41]

라오스 커피는 기후가 서늘하고 고도가 높은 남부 참파삭 지방의 볼라벤 고원과 팍송(pakxong)주의 통엥(Tongeng), 사라반 지방의 라깡(Laongam)에서 생산되며, 이 지역의 커피 생산량은 커피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볼라벤 고원에는 총 70,000ha 규모의 농장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1ha에서 500~800kg의 커피를 수확할 수 있다.[42]

라오스 정부는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커피산업을 주요 국가사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커피 농장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2+3 정책'은 농민이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자금, 기술, 거래 시장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자금과 기술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나 라오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개인 투자자와 기업에 볼라벤고원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1년간 1ha당 2~3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농민의 커피 재배역량 향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은행 대출을 허가하여 생산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커피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작물 재배조건에 적합하고 질병에 강한 새로운 커피 개발을 장려 중이다.[43]

40)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109, 검색일: 2020. 6. 14.).
41)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109, 검색일: 2020. 6. 14.).
42)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109, 검색일: 2020. 6. 14.).

라오스는 저가의 원두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구조이며, 농민은 토양 및 묘목 관리, 수확 및 재배, 가공 전반의 기술이 부족하다. 재배한 커피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전과 기술이 부족하며, 생산 인프라의 한계로 커피 등급을 측정할 수 없어 수출단가 협상에 손해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생산 및 수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44]

바. 환금작물

환금작물은 라오스의 전통적인 경작 방식인 화전이동경작의 대안으로 산림보호와 빈곤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국가의 80%가 언덕이 많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수도작이 불가한 산악 및 고원 지역에서 화전농업은 농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토양을 척박하게 하고, 열대림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환금작물 재배 장려를 통해 천연자원 보호와 산악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 신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자연경제에서 상업적 작물 생산을 추구하는 국가 경제 구조의 전환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금작물로는 담배, 참깨, 차, 두류 등이 있다.

〈표 2-18〉 주요 환금작물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대두	6,360	13,905	17,035	18,675	19,130	7,960	8,380
	담배	75,560	56,755	63,355	63,040	66,800	35,615	54,005
	땅콩	46,020	54,805	59,250	62,010	63,200	49,105	48,885
	차	3,975	6,105	7,935	6,295	7,300	7,660	8,055
	참깨	13,890	11,730	15,400	16,770	16,800	16,255	16,235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45]

43)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109, 검색일: 2020. 6. 14.).

44)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7109, 검색일: 2020. 6. 14.).

담배는 산악 및 고원지역에서 생산경험과 잠재력이 풍부한 작물이다. 2018년 기준 5만 4,000톤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54%가 증가했으나, 2012년 7만 5,000톤에 비해 감소되었다(<표 2-18> 참조). 담배의 주산지는 시장수요가 있는 루앙프라방주의 남박(nambak), 오돔싸이주의 남모(Namor), 벵(beng), 싸이(Xay), 사이아불리주의 팍라이(Paklay) 등이고, 평야 지대에는 비엔티안주의 톨라콤(Thoulakhom), 볼리캄사이주의 팍산, 캄무안주의 셋방파이, 사바나켓주의 사이아불리, 사라반주의 나콘네펭(Nakhonepheng), 참파삭주의 콩(Khong) 등에서 주로 국내 가공 공장이나 수출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이 지역에서는 2025년까지 대략 1만 5,000ha에서 15만~2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MAF 2015a: 60).

참깨는 라오스 북부에서 널리 재배되며 루앙프라방주와 오돔싸이주 및 사이아불리주에서 상업용 참깨를 재배한다. 참깨는 참기름으로 추출하여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베트남, 태국 및 중국 등으로 수출된다. 참깨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다른 작물보다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시장성이 있다. 참깨는 수작업으로 수확 후 건조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낮은 인건비는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주로 재배되는 참깨는 흰참깨로 흑참깨보다 인근 국가의 수입 수요가 낮고 수출용 품종 개발과 수확 후 건조 및 처리에 대한 농민의 기술 부족으로 등급 결정 및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JICA 2012: 42-43, 90-98).

차는 라오스 문화에서 중요한 작물로 차 재배는 소수민족과 고원지대의 시골 지역 여성의 주요 농업 활동이며, 빈곤 감소와 농촌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GIZ 2017: 98). 산악 및 고원 지역의 차 생산 지역은 주로 볼라벤고원에 있는 참파삭주의 팍송, 바치앙(bachieng), 사라반주의 라오남(Lao Ngam), 세콩 주의 탓텡(Thateng), 그리고 퐁살리(Phongsali)주와 같은 북부 일부 지역에서 잠재력이 높다. 특히 재배 경험이 많은 지역은 청결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OA와 GAP 기준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이 장려되고 있다(MAF 2015a: 60). 차는 야생차, 고대차, 상업용 재배차 등으로 구분되어 재배되

45)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며, 야생차와 고대차는 주로 북부의 퐁살리에서 재배되는 반면 상업용으로 재배되는 차는 남부지방에서 더 일반적이다. 차의 약 95%가 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며 재배된 차 중 일부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의 특산품으로 가공된다. 라오스 차에 대한 중국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는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를 선호한다(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9: 26-28). 차 재배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상태이다. 차 수집, 수확 및 가공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연구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차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적다. 지방 및 정부의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차 가치사슬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한다(GIZ 2017: 99).

두류는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아편 생산을 근절하고 화전이동경작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에서 홍보된 환금작물이다. 땅콩, 대두, 녹두 등이 주 작물이며, 상업용 두류로는 완두, 검정콩, 동부 등이 있다(MAF 2015a: 60-61). 땅콩과 대두는 사이아불리주의 보텐, 팍라이(Paklay), 비엔티안주의 방비엥(Vangvieng), 비엔티안도(Vientiane Capital)의 쌍통(Sangthong), 볼리캄사이주의 비엥통(Viengthong), 사라반주의 라오남, 참파삭주의 팍송 등에서 중점 생산하며, 4만 ha에서 8만 톤을 생산한다. 평야 지역의 연간 재식 면적은 2만 7,000~3만 ha이며 연간 평균 생산량은 5만 4,000톤~6만 톤이다. 가구당 평균 대두 생산 면적은 0.5ha 이상으로 비교적 저개발된 작물이다. 태국이 라오스 대두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생산 규모가 작고 시장 진입에 제한적이며, 높은 운송비용과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과 브라질 등의 대량 공급업체와 경쟁하기에는 장벽이 존재한다(MAF 2015a: 60-61; SDC 2018: 100-103). 땅콩은 주로 스낵과 기름으로 가공되며 가정 소비용으로 현지 시장에서 소규모로 판매된다. 수출용으로 재배된 땅콩은 중국, 베트남, 및 태국 시장으로 수출되지만 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땅콩이 라오스 땅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시장경쟁력이 약하다. 땅콩은 남부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팍세와 사라반주는 땅콩 생산의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토양이 비옥하여 땅콩의 품질이 좋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규

모로 생산되어 품질 관리 없이 시장에 유통된다(SDC 2018: 96-98).

2.4.2. 과일

라오스는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이 시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농업 진흥을 위해 쌀, 옥수수, 커피 등의 작물 재배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일 산업은 미발달되어 있다. 특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가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나 노동, 물류, 자본 등 관련 인프라의 미비로 관련 산업의 성장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46]

라오스 과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용안과 람부탄은 주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며 두리안, 사과, 오렌지, 배, 파파야, 망고 등은 주로 태국에서 수입된다. 라오스 및 인근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과, 포도, 키위, 딸기 등의 과일은 생산지에서 태국으로 수입된 제품이 다시 라오스로 수입 및 유통되고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과일인 딸기, 감귤, 배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47]

〈표 2-19〉 주요 과일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망고	4,400	4,531	4,686	4,851	4,826	4,957	5,087
	바나나	365,100	420,425	508,580	787,000	796,200	946,820	970,985
	수박	107,856	154,200	158,945	196,165	194,515	128,850	198,160
	오렌지	42,000	42,878	43,626	45,543	44,865	45,111	45,357
	파인애플	49,615	36,355	61,695	57,095	58,400	32,470	34,230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48]

46)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74912, 검색일: 2020. 6. 14.).

47)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74912, 검색일: 2020. 6. 14.).

라오스는 냉동 창고, 컨테이너 등 식품 보관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아 소량 주문을 선호하며, 소비자의 선주문에 따라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신선과일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짧고 비용이 높아 운송비 및 최소 주문 수량 부담이 있는 한국과의 직거래보다는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와의 재고 부담이 없는 거래에 익숙해 있다. 유통구조는 적은 인구와 내륙국으로 물류가 어려운 특성상 유통단계가 단순하고, 식품 유통체계가 미비하며, 수입업자가 수입, 도소매, 유통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49]

2.4.3. 축산

라오스의 가축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소 사육두수는 약 204만 마리이고, 돼지는 382만 마리, 닭은 3,920만 마리로 닭의 사육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가금류의 사육두수가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보다 많은 이유는 빠른 성장 속도와 비교적 저렴한 축사비 및 사육비, 높은 공간 효율성에 기인한다.

〈표 2-20〉 주요 가축 수

단위: 마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닭(천 마리)	28,779	30,727	32,408	34,422	35,150	36,960	39,218
돼지	2,794,000	2,948,000	3,122,000	3,258,000	3,700,000	3,869,000	3,824,663
물소	1,188,000	1,190,000	1,153,000	1,165,000	1,177,000	1,189,000	1,200,040
소	1,692,000	1,714,000	1,766,000	1,828,000	1,923,000	1,984,000	2,040,907
염소	443,799	470,000	481,000	533,000	560,000	588,000	616,325

자료: FAO(2012~2018).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0]

48)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49)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99/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74912, 검색일: 2020. 6. 14.).
50)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2017년을 기준으로 최대 소 사육 지역은 라오스 중부의 사바나켓주이며 총 45만 6,000마리를 사육하여 전체 소 사육두수의 약 23%를 차지했다.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은 남부의 사라반주로 총 94만 5,000마리이며,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약 24%를 차지했다. 닭은 남부의 참파삭주가 최대 사육 지역으로 총 691만 4,000마리를 사육하여 전체 가금류 사육두수의 약 19%를 차지했다. 축산 농가는 소규모의 자급자족 형태이며, 대부분 방목사양으로 가축들이 수명이 길고, 운동량이 많으나 사료량이 적어 크기가 작고 육질이 질기다. 소의 경우 상업용 대형 농장에서는 외래종을 사육하고 소농가에서는 라오스 재래종을 사육한다. 라오스 재래종은 전체 육우의 70%를 차지하고, 생시 체중이 15kg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농경에는 소보다 환경 적응력이 높은 버펄로가 사용되지만 주로 방목지에서 사양 관리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과 육질 개량 및 증체 개량을 위한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닭의 경우 가공육 회사와 태국계 곡물 회사의 라오스 진출로 대규모 사육 농장이 나타남으로써 닭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의 자체 소비용 또는 판매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종돈 및 종계장이 없어 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비용과 국경 통과의 문제로 소농가에서는 수입이 어렵다.[51]

〈표 2-21〉 버펄로 사육 수

단위: 천 마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북부	298	275	278	281	282
중부	546	545	550	556	581
남부	346	334	337	340	326
전체	1,190	1.154	1,165	1,177	1,189

자료: KOTRA 웹사이트.[52]

51)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526, 검색일: 2020. 6. 14.).

52)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526, 검색일: 2020. 4. 18.).

육류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등급제 없이 도축된 지육은 중간상인에게 판매되거나 개인 간 자율거래로 유통되며, 도소매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오스 내에 운영되는 대규모 도축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도축장과 태국 닭고기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도축장뿐이며, 대부분 소규모 도축을 실시한다. 육류 도매시장에서는 냉장고 없이 좌판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가 되며, 소비자들은 육제품 구매 시 위생이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기반한 소비패턴을 보인다.[53]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최초의 한국 축산업체로는 두메촌이 있으며 돼지와 닭은 라오스산을 사용하고, 소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라오스로 재수입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한국의 정육점과 유사한 형태의 냉장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있으나 수요가 부족하고,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54]

라오스의 축산 시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나 낙후된 도축 시설과 기술 및 자금의 부족, 전근대적인 유통 시스템 등으로 고기의 품질이 낮아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55]

2.5. 라오스 농업분야 시사점

라오스 농업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농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물리적 제약, 구조적 제약, 제도적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제약으로는 ▲산악지형에 따른 높은 운송비용 및 서비스 접근 기회 제한, ▲불안정한 기후 및 자연재해 취약성, ▲건기 시 제약적인 물 가용성 등이 있

53)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526, 검색일: 2020. 6. 14.).
54)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526, 검색일: 2020. 6. 14.).
55) KOTRA(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6526, 검색일: 2020. 6. 14.).

다. 구조적 제약으로는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농업 투입물의 제한된 접근, ▲소규모 자급자족 농업 시스템에 따른 낮은 생산성 및 품질, ▲환금작물 및 상업적 농산물 가치사슬의 저개발, ▲지역별 관개시설 접근 제약, ▲농업 기술, 경험 부족, ▲수확 후 처리, 가공시설, 유통, 마케팅 기술 부족, ▲이웃 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 경쟁력, ▲농산물 생산-가공 시스템 연계 부족, ▲전문적인 정보 및 지식을 갖춘 농민 부족 등이 있으며, 제도적 제약으로는 ▲농업 기술지도, 연구, 기술전문가 및 실험활동 등 역량 부족,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부 정책제도, 일관되지 않은 시행, ▲정부의 제한된 거버넌스 역량, ▲정부의 농민 지원을 위한 빈약한 재정, 금융제도 및 복지 부족 등이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라오스는 넓고 값싼 농지와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수력 및 광물 자원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으며, 낮은 수출 관세로 주변 국가인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의 농산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전략에 농업개발을 위한 친환경 영농업개발을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형 농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영농계약에 기반한 쌀, 옥수수, 커피, 사차인치 등 기업형 영농사업과 농산물 가공 산업, 친환경 영농업 등에 최대 15년간 법인세, 토지임차료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자들은 일정기간 토지 이용권과 수자원 사용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라오스 농업분야의 강점과 기회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 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라오스의 외국인투자 제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합작하여 투자하는 방식인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농업 인프라 건설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PPP는 중소득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개발재원이지만 최빈국인 라오스는 '연계성(Connectivity)'을 강조한 운송망 구축,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PPP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망 건설이 가능하고 수출 맞춤형 농축산물 생산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인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성과 전수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공

고히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개배수 시스템 개보수 및 현대화, 영농시설 확충,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지와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생산성을 확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자개량, 농업기술, 농기자재, 비료 등 농업 투입재에 대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전수를 통해 라오스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거점 농업기술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및 영농 육성 교육, 농기계 사용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등 라오스 맞춤형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농산품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의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라오스 정부는 농업을 "가장 중요한 전장(first and foremost battle field)"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MAF 2015a: 4). 이하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정리, 제시한다.

□ 농업개발전략(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the Year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라오스의 농업개발전략(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ADS)은 농림부가 2015년에 공표하였는데 2020년, 2025년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이 제시한 장기 비전은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비교 및 경쟁우위 잠재력이 있는 농산품을 생산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개발하고, 탄력적이고 생산성 높은 현대화한 농업경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며, 농촌개발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MAF 2015a: 1).

ADS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작물과 축산물(food products), 시장경쟁력 있는 상업작물과 축산물(agricultural commodities)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령, 프로그램, 실행계획과 사업들, 나아가 집행과 점검, 평가를 담당할 중앙,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상세하게 열거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벼 500만 톤 생산, 사료용 옥수수 140만 톤, 커피 28만 톤, 사탕수수 240만 톤, 카사바 160만 톤, 콩 5만 2,000톤 등 구체적인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 초급 농업기술을 교육받은 개발요원을 마을당 3~5명씩 전체 마을에 배치한다는 목표도 있다.

ADS가 전략적 상업작물로 선정한 것은 벼, 사료용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카사바, 고무나무 등이다. 그 밖에 율무, 참깨, 차, 담배, 콩, 채소, 과일나무도 지역에 따라서는 중요한 작물들로 꼽고 있다(MAF 2015a: 57-62).

ADS는 라오스의 식량안보와 상업적 농업을 위한 포괄적,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전략적 우선순위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계획(Investment Plan)이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ADS는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MAF 2015a: 76).

다음 표는 ADS가 제시한 정책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2〉 ADS가 제시한 특별한 기술적 조치들

구분		내용
식량작물/축산물	식량작물	농지이용 방식 설정 및 구획화: 평지의 농지, 비평지의 농지, 고원 및 산악 지역의 농지 등 구분
		식량작물 생산 지역의 구획화: 쌀, 채소, 콩, 과일 등
		관개 인프라 개발
		자연재해 예방과 해결
		청정농업 생산과 식품안전
		투입재 사용 관리체계 개발 및 개선
		생산기술의 보급과 서비스 확대
		새롭고 적절한 기술의 연구와 적용
		식량비축제도 수립
	소비용 축산물	축·수산물 생산성 개발 및 개선: 대가축, 돼지, 염소, 가금류, 수산물, 야생동물, 수의 서비스
		위생조치 개선: 가축질병 예방, 사료, 수의 서비스, 축산물 품질 확보
		축·수산물 연구
		기술보급
	식량안보와 영양	가용성, 접근성, 안전과 영양, 안정성
상업작물/축산물	상업작물	상업작물 생산 지역의 구획화: (전국적으로 중요한 작물) 쌀, 사료용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카사바, 고무나무 (지역적으로 중요한 작물) 율무, 참깨, 차, 담배, 콩, 채소, 과일
		작물보호
		품종연구 및 재배기술 개발
		가공과 판매
	판매용 축산물	축산물 생산 지원: 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산란오리, 양식어, 사료, 축산물 가공
		연구

자료: MAF(2015a).

〈표 2-23〉 ADS가 제시한 지원 프로그램, 실행계획 및 사업

구분	내용	
식량 및 상업작물	농지개발 실행계획	농지관리 관련 입법 등 4개 사업
	인프라 개발 실행계획	관개개발 등 4개 사업
	청정농업개발 실행계획	기준설정 및 개발 등 9개 사업
	생산관리 및 지원 실행계획	농가등록 등 9개 사업
	작물보호 및 검역개발 실행계획	작물보호 및 검역 입법 등 11개 사업
	식량작물 연구 실행계획	쌀 품종 관련 연구 등 8개 사업
	상업작물 생산 실행계획	수출용 쌀 생산 등 6개 사업
	상업용 작물품종 및 기술연구	토착 작물품종 연구 등 8개 사업
	작물보호 및 검역 관련 인적자원 개발 실행계획	전문가 역량개발 등 3개 사업
소비용 및 상업용 축산물	생산성 개선 실행계획	대가축 생산개발 연구 등 12개 사업
	위생조치 관련 개선 및 개발 실행계획	수의 서비스 확대 등 11개 사업
	축·수산물 생산연구 실행계획	토착 가축, 수산물 품종 연구 등 5개 사업
	상업용 축·수산물 생산연구 실행계획	토착 가축, 수산물 품종 연구 등 8개 사업
	축·수산물 기술보급 실행계획	보급체계 개선 등 4개 사업
	관리 및 행정개선 실행계획	관리 서비스 훈련, 역량개발 등 5개 사업
	상업용 축·수산물 생산확대 실행계획	대가축 생산 확대 등 13개 사업

자료: MAF(2015a).

□ 농작물부문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the Crop Sector 2025 and Vision 2030)

이 전략서는 ADS의 취지와 ADS가 설정한 목표치 등에 따라 작물 부문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20%를 이른바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 대상 면적으로 하고 그 가운데 절반은 유기농업(OA)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받은 재배지역으로 하며, GAP 인증 농가와 기업 10만 곳, 유기 농가와 기업 7만 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MAF 2015b: 9, 17). 이 부문 전략 역시 ADS와 같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음 표는 8개 분야별 정책 사업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2-24〉 농작물 부문 개발을 위한 분야별 사업

분 야	사업	
농지	• 농지규제 및 관리 • 농지활용계획 및 구획설정	• 토양비옥도 관리 • 제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 관개개발 • 농업 서비스 개발	• 연구 및 실험 인프라개발 • 식물실험실 개발
청정농업개발	• 기준개발 • 시범사업 • 인증사업 • 환금작물 기준개발 • 식물기준개발	• 관리 및 규제지원 • 인프라개발 • 관리역량개발 • 채소 및 과일재배 확대사업
작물생산 촉진 및 관리	• 농가등록 • 수출지향 작물 생산자 등록 • 투입재 관리 • 수확 후 처리 • 규제에 대한 이해 제고	• 투자 모니터링 및 촉진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감축사업 • 수확 후 기술 개발 • 정책, 전략, 규제, 지침 개발 및 개선
작물보호 및 검역	• 작물보호 및 검역 이해 증진 • 검역체계 개선 • 작물보호 전략 수립 • 국가 작물보호체계 수립 • 무역협상 관련 해충위험 이해 증진 • 농산물 위생 처리	• 통상적 해충 목록 작성 및 평가 • 투입재 품질 및 화학적 잔여물 실험 • 해충 예찰 • 마을단위 작물보호 홍보 • 작물 검역소 개선
작물 연구	• 가격 및 비용분석 • 부가가치 연구 • 농업현대화 사업 • 신용 및 투자연구	• 벼 품종 개량 • 과일 및 채소 품종 개량 • 영농 방식 개선 • 수확 후 기술 개발
환금작물 생산	• 시장판매용 쌀 생산 • 시장판매용 환금작물 생산 • 농기업 확대	• 농업정보 지원사업 • 농업현대화 촉진
인적자원 개발 등	• 분야별 전문가개발 • 식물 검역관 역량개발 • 관리자 역량개발	• 농장 기술개발 • 농민 관리 • 농기계 시범사업

자료: MAF(2015b: Annex).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1.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개발협력 현황

한국의 對 라오스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루어진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對 라오스 ODA 규모는 수교를 기점으로 1995년 이전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수교 이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무상원조는 더욱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00만 달러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이요한 2012: 68).

우리나라는 라오스를 중점 협력국가로 분류하고 ODA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 대다수가 소규모 자작농으로 빈곤율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지역개발 지원을 통한 라오스의 빈곤 퇴치와 영양 상태 개선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10-11).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라오스에 3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위 4위 공여국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10대 원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원조액은 8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9%의 비중을 보인다(<표 3-1> 참조).

〈표 3-1〉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규모 순위(2008~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규모	비중
1	일본	802.33	19
2	세계은행	509.59	12
3	ADB	496.06	12
4	한국	365.00	9
5	호주	337.11	8
6	독일	255.85	6
7	스위스	187.31	4
8	미국	178.52	4
9	EU	174.77	4
10	룩셈부르크	136.74	3
총액		3,443.29	80

자료: ODA코리아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6]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ODA 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9.1%, 69%, 1.9%, 1.7%, 2.1%로 2014년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지원으로 ODA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급감하였고,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아래 <표 3-2>는 2017년 우리나라가 라오스에 제공한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총액이다. 2017년에 제공된 ODA 총액은 133백만 달러이며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는 2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분야별 지원 금액의 차이는 미미하나 그중에서도 농업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6)ODA코리아(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검색일: 2020. 9. 20.).

〈표 3-2〉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7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분야총액	ODA총액	비율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05	133.476	0.04%
	31120: 농업개발	1.93		1.45%
	31140: 농업용수 자원	0.02		0.01%
	31161: 식량생산	-		-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31163: 축산	0.09		0.06%
	31166: 비정규농업훈련	0.03		0.03%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0.25		0.19%
	31191: 농업관련서비스	-		-
	31192: 병충해구제	0.14		0.10%
	31194: 농업협동조합	-		-
	31195: 축산진료	-		-
	31220: 임업개발	0.02		0.02%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0.22		0.17%
총액		2.76	133.476	2.07%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57]

아래 <표 3-3>은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원한 ODA 사업 내역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 기간에 라오스에서 ODA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영농기술, 채소 재배 및 벼 생산기술, 농업용수 개발, 협동조합 관리 등 농업기술 전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들은 대체로 단기간에 실시되었다.

분야별로는 농업개발 분야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새마을 연수 사업, 관개개발, 농업기술 전수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2019년에는 라오스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한 농촌공동체개발

57)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 검색일: 2020. 3. 10.).

사업(Saemaul Undong: SMU)을 전국으로 확산해줄 것을 제안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전달하였다. SMU 사업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촌기반 조성, 공공시설 건립, 직물협회 조직 및 소액금융 운영 등을 실시한 종합농촌개발 프로젝트이다. 2013년 라오스 대통령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실시된 새마을운동이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와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새마을운동 방식 전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2014년부터 라오스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쌀 가치사슬 증대 사업, 소 사양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 새마을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의 30%를 주민 부담으로 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였다. 주민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한 사업이라는 점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에 라오스 정부는 농촌개발사업의 정립과 지방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를 위한 컨설팅 팀을 파견하는 것과, 다양한 지형과 기후조건에 따라 마을 개발 모델을 수립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58]

라오스는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국가로 2020~2023년 사이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형태로 우리나라는 라오스에 5억 달러의 ODA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오스 정부는 주변국가 및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개발 및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59]

58) 송재선. 2019. 5. 31. “라오스 정부·한국정부에 바란다.”『농촌여성신문』.

59) 김정훈. 2020. 7. 6. “내륙 고립국 벗어나 ‘메콩 중심국’ 변신중 한국의 적극 투자 기대.”『글로벌이코노믹』.

〈표 3-3〉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 사업 내역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사업유형
농업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구축 및 인적역량개발	2014.4.2.~ 2014.12.31. 2018.1.1.~ 2019.2.28.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1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 개발 연수	2014.6.12.~ 2014.7.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봉사단 파견	2016.1.1.~2016.12.31.	공여국 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4
		아시아 개도국 식품위생 공무원 역량 강화	2017.6.15.~2017.7.1. 2018.10.14.~2018.11.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석사학위) 농축산 가공/마케팅	2017.8.1.~2019.1.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	2018.1.1.~2018.1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라오스 지속가능한 사회적 친환경농업사업	2018.12.20.~2021.12.31.	교육/연구기관	한국국제협력단	1
		ODA 사업 평가	2019.2.1.~2019.12.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31120:농업 개발	라오스 관개 및 농업개발	2013.8.8.~2013.8.2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
		라오스 농업농촌 역량개발 민관협력 사업	2014.1.1.~2014.12.31.	가나안농군학교	한국농어촌공사	1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1.1.~2020.12.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1
		외국인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사업	2014.6.9.~2014.6.29.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ASEAN 특별연수) 차세대 방송 콘텐츠 제작 교류	2014.10.1.~2014.10.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ASEAN 특별연수) 포괄적 환경 모니터링 연수	2014.11.6.~2014.11.19.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사바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2015.2.13.~2021.6.1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	2015.9.14.~2019.12.30.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2016.1.1.~2016.12.31. 2017.1.1.~2017.12.31. 2020.1.1.~2024.12.31.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농촌진흥청	1

(계속)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사업유형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2016.1.1.~2016.12.31. 2017.1.1.~2017.12.31.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농촌진흥청	1
		(강원도)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능력배양	2016.6.13.~2016.7.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	2017.4.2.~2017.8.25. 2018.5.7.~2018.6.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라오스에 농업개발 관련 NGO봉사단 파견	2018.1.1.~2018.12.31.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4
		(석사학위) 농업경제 역량강화	2018.8.1.~2020.1.31. 2019.8.1.~2021.1.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
		라오스 헷사이퐁지구 채소재배 기술향상 사업	2019.1.1.~2022.12.31.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
		해외농업기술개발	2019.1.1.~2019.12.3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
	31140:농업용수자원	라오스 사바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2014.5.30.~2019.9.30.	라오스 농림부	한국수출입은행	1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전문가 양성	2017.9.7.~2017.9.28.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31161:식량생산	(석사학위) 농업생산성 역량강화	2019.8.1.~2020.1.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
	31162:경제작물/수출작물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 지역 워크숍	2013.8.1.~2013.12.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
		고품질 안전채소 생산기술	2014.5.8.~2014.5.17.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	2014.5.22.~2014.6.1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31163:축산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사업(FAO)	2014.1.1.~2015.12.3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농림축산식품부	5
		해외봉사단 파견	2016.1.1.~2016.12.31. 2017.1.1.~2017.12.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

(계속)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사업유형
	31166:비정규 농업훈련	사업대상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2013.12.31.~2014.12.30.	라오스 NGO	한국국제협력단	1
		해외봉사단 파견	2016.1.1.~2016.12.31. 2017.1.1.~2019.12.31.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4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 지역 워크숍	2015.10.12.~2015.10.16. 2016.5.1.~2016.11.1.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2015.11.1.~2015.11.14. 2016.5.29.~2016.6.4. 2016.7.31.~2016.8.13. 2018.10.14.~2018.10.27.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	3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2015.11.9.~2015.11.13.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2016.5.1.~2016.11.1.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3
		아시아 개도국 안전성 관련 관계관 초청연수	2016.5.29.~2016.6.4. 2018.2.6.~2018.8.31. 2019.6.17.~2019.7.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	2017.5.15.~2017.6.4. 2018.4.16.~2018.5.10.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역량 강화	2018.7.1.~2018.12.31. 2019.5.1.~2019.12.31.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3
	31182:농업 연구	WFK 퇴직전문가 파견	2018.1.1.~2018.12.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
	31192:병충해 구제	식물검역 병해충 예찰조사 능력개발 사업	2013.4.25.~2016.6.30.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농림축산식품부	5
		개도국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능력 제고 사업	2015.1.1.~2018.12.3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농림축산식품부	5

(계속)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사업유형
	31193:농업금융 서비스	금융협동조합 운영 역량강화	2019.8.15.~2019.8.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31194:농업협동조합	농촌개발과 협동조합 역량강화	2014.8.25.~2014.9.1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31220:임업 개발	WFK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2017.1.1.~2017.12.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
다분야	43040:농촌개발	개발도상국가 새마을교육	2013.1.1.~2013.12.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
		해외봉사단 파견	2016.1.1.~2019.12.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
		(석사학위) 지역개발 역량강화	2017.8.1.~2021.1.3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
		(강원도)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역량배양	2018.6.21.~2018.7.7.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
		농촌개발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 및 수출 지원 사업	2018.11.1.~2020.10.31.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한국국제협력단	1

주: 사업유형에서 1: 프로젝트원조, 2: 기타 기술협력, 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4: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5: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60]

60)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검색일: 2020. 3. 10.).

한편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협력전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국가협력전략(CPS),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의 라오스 진출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은 2013년에 처음 수립되었다. 당시 중점 협력 분야는 (i)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ii) 인적 자원 개발 (iii) 보건의료 분야로 설정되었다. 이어 2016년에는 제2차 협력전략이 수립되었는데, 이 전략서는 2020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다.

2차 협력전략이 설정한 중점 협력 분야는 (i) 물관리 및 보건위생 (ii) 에너지 (iii) 교육 (iv) 지역개발 등이다. 물관리와 보건위생은 1차 협력전략에서의 수자원, 보건의료와 일치하며, 에너지는 전력 인프라, 교육은 인적 자원 개발과 각각 연계되어 있다고 볼 때, 2차 협력전략에서는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괄, 적용된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가 기존 중점 협력 분야에 추가되어 새로 포함된 것이다. 이는 라오스 농업의 비중(GDP의 24%), 농민 인구의 비중(전체의 약 60%)뿐만 아니라 2010~2014 기간에 우리나라가 라오스의 농림수산업, 농어촌개발 부문에 총 1,631만 달러를 지원한 실적 등을 볼 때 이 분야의 협력 중요성이 높다고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2차 협력전략의 중점 협력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의 내용은 “농촌종합개발을 통해 빈곤 퇴치 및 소득 증대에 기여”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라오스의 삼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정책과 제도화를 지원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모델을 토대로 라오스 상황을 반영한 농촌개발 모델을 마을, 군, 도 단위별로 정립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확립한다. 셋째, 농업기술 교육, 농산물 가치사슬 전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역량 강화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 넷째,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불발탄 제거 등이다.

라오스에 대한 2차 CPS는 농업,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에 새로 포함하기는 하였지만, 경제적 차원에서의 소득 증대, 사회적 수준에서의 빈곤 퇴치를 농

촌종합개발이라는 틀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개괄적인 방향만 수립된 상태이다. 가령 협력사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작물과 분야, 가치사슬 전체 단계에서 개입하여야 할 지점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퇴치를 위한 모델의 구축 방안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라오스 진출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 무역 확대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business)의 관점에서 주요 국가에 대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상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력이 높은 주요 분야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KOTRA가 제안하는 라오스 2020년 진출전략의 분야는 소비재,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 관광업, 에너지, ICT, 보험 서비스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 농산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라오스 정부가 농림업 분야의 친환경 개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주변 국가 농산품 시장으로의 수출 기지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을 제시하였다. 즉 (i) 현대식 친환경 가공시설 및 기술 (ii) 최신식 농기계 도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스마트 기후변화 예측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품 개발 (iii) 유망품목으로는 쌀, 옥수수, 커피, 사차인치 등에서의 기업형 영농 등이 그것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46, 48).

유 · 무상 원조 등 개발협력에서의 협력분야에서는 (i) 관개수로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농촌관광 인프라 개발 등 농촌개발 (ii) 비료, 농기계 등에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진출 (iii) 농산물 가공 및 유통센터 투자협력(가공설비와 위생검역 체계, 통관 시스템 정책 컨설팅, 곡물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84).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KOTRA의 진출 혹은 협력분야는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현대 · 최신식 장비와 시설, 기술을 갖춘 기업농에 의한 규모화된 투

자방식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산업과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농업 생산 인프라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출 및 협력분야의 제시가 체계적 · 전문적이지 않으며, ODA 등 개발협력의 관점보다는 이를 통한 국내 기업 진출과의 연계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사회의 對 라오스 개발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에 대한 지원규모는 중소득국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원 중 76%를 증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유애라 2019: 8).

지난 5년간(2013~2017)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총액은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부문별로는 CRS 농림수산업(310) 부문 지원 총액이 2013년 2,281만 달러에서 2017년 5,132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되었다. 특히 농업분야는 같은 기간 1,458만 달러에서 3,637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농업개발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왔으며, 2013년 594만 달러 대비 2017년에는 283%가 증가한 2,275달러가 지원되었고 농업 분야 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분야이기도 하다.

〈표 3-4〉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3~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00: 생산 총액	31.21	36.99	36.25	38.33	42.78	59.56
310: 농림수산 총액	22.81	28.46	26.63	28.73	35.81	51.32
311: 농업 총액	14.58	16.20	16.40	21.78	26.55	36.37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84	1.88	2.09	1.02	3.52	4.09
31120: 농업개발	5.94	7.14	9.77	15.55	15.54	22.75
31130: 농업용지	1.035	1.146	0.811	0.007	0.991	0.64
31140: 농업용수	0.69	0.68	0.31	1.04	0.29	0.76
31150: 농업투입요소	-	-	-	-	0.317	0.043
31161: 식량작물생산	0.09	0.03	0.06	0.09	0.05	0.37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0.22	-	0.07	0.43
31163: 축산	0.38	0.30	0.40	0.04	0.21	0.06
31164: 농지개혁	-	-	-	-	-	-
31165: 농업대체작물	-	-	-	0.20	0.25	1.07
31166: 농업기술훈련(농촌지도)	0.05	-	-	0.04	0.14	0.36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0.05	0.04	0.58	0.31	0.41	0.20
31182: 농업연구	3.60	3.04	1.63	3.07	1.29	4.83
31191: 농업관련서비스	-	0.47	-	-	1.89	0.61
31192: 병충해구제	0.04	0.11	0.08	0.18	0.13	-
31193: 농업재정서비스	-	-	-	-	-	-
31194: 농업협동조합	-	0.11	0.06	0.06	1.22	0.03
31195: 축산진료	0.82	1.21	0.351	0.12	0.18	0.06
312: 임업	6.92	10.79	9.61	6.64	6.53	10.77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4.09	5.40	5.01	3.94	3.79	9.34
31220: 임업개발	2.83	4.16	4.15	2.69	2.74	1.43
31261: 연료재 및 숯 생산	-	-	-	-	-	-
31281: 임업교육훈련	-	-	-	-	-	-
31282: 임업연구	-	1.23	0.44	-	-	-
31291: 임업서비스	-	-	-	-	-	-
43040: 농촌개발	21.28	22.18	17.36	20.93	15.89	18.09

자료: OECD.Stat(2013~2017). 「Developmen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61]

61)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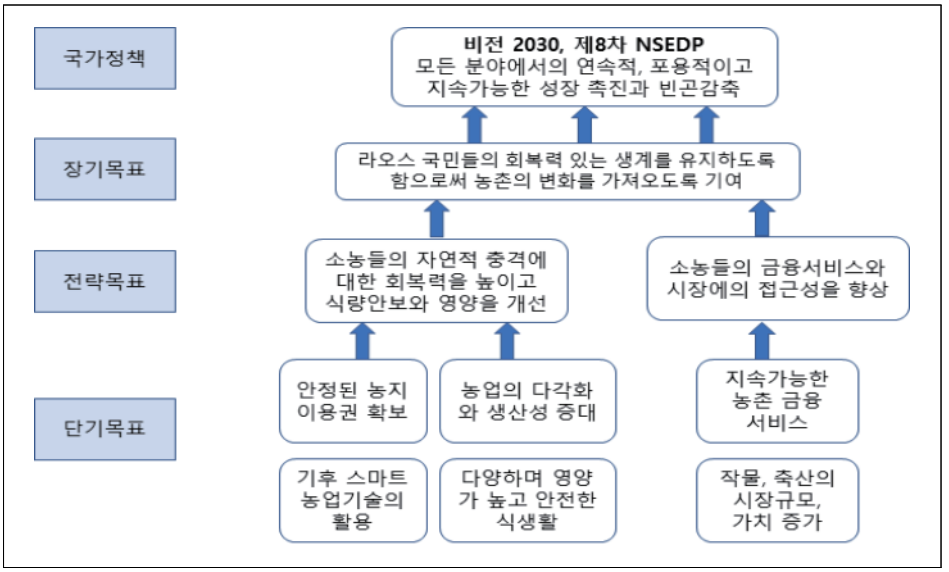
국제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라오스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FAD의 라오스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8~2024: COSOP)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IFAD의 라오스 COSOP는 라오스 정부가 수립한 제8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NSEDP)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COSOP은 소농(smallholders)을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의 목표(goal)와 두 개의 세부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s)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는 "라오스 국민들의 회복력 있는 생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여한다"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농들의 자연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이들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개선한다"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단기적 목표(outcomes)는 네 가지인데, (i) 안정된 농지이용권 확보, (ii) 기후 스마트 농업기술의 활용, (iii) 농업의 다각화와 생산성 증대, (iv) 다양하고 영양가 높으며 안전한 식생활 영위 등이 그것이다(IFAD 2018: 6-7).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농들의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이다. 이를 위해 (i) 지속가능한 농촌 금융 서비스 제공, (ii) 작물과 축산에 대한 시장규모와 가치 증가 등을 단기목표로 설정하였다(IFAD 2018: 7). 다음은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 IFAD의 국가전략기획프로그램



자료: IFAD(2018: v).

IFAD의 라오스 농업개발협력 전략은 여성 및 여성가장 가구, 청소년을 포함하여 소농 등 여건이 열악한 층을 핵심 수혜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부응한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영양(FSN)과 같은 기초적 생계 지원,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제공과 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상업화와 소득 증대의 두 축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FAO의 라오스 국가계획프레임워크(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for Lao PDR 2016~2021: CPF)

FAO의 CPF도 역시 라오스 정부의 제8차 NSEDP의 목표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NSEDP에서 강조한 사항 가운데 네 가지를 CPF의 중점분야(government priority)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중점분야마다 단기적 목표(outputs/results)를 설정하였다(FAO 2016).

첫 번째 중점분야는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의 지원"이다. 단기적 목표는 (i) 소

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강화로서, 동식물 위생기준(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우수농산물(GAP) 인증 등을 강조하였다. 또 (ii) 농업가치사슬(Agricultural Value Chain: AVC)을 개선하도록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고 정책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한다. (iii) 효율적, 포용적 농식품체계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두 번째 중점분야는 "취약계층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i) 각 행정단위의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ii)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을 개선하고 성인지적, 생계지향적 농업을 발전시키며, (iii) 라오스 농림부(MAF) 공무원의 모니터링과 평가(M&E) 체계를 개선한다.

셋째로, "산림과 생태계의 보호 및 개선"이다. (i) 농지, 산림, 수상 생태계를 위한 국가정책, 규제제도 등의 개발, 수행을 지원한다. (ii) 농업, 자연자원에 대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개발하며, (iii) 종다양성 등을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 기반 참여적 접근방법을 동원한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비상상황, 영향에의 대응 역량 개선"이다. 이와 관련한 단기목표는 농업기후 관리, 재해로부터의 위험 경감과 관리, 초국경 동식물 질병 통제 및 관리, 그리고 각종 응급상황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역량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FAO의 전략은 라오스 농림부뿐만 아니라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의 업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호 등과 관련된 목표가 함께 들어 있다. 또한 전국(national), 도(provincial), 군(district) 등 3단계별 정책 집행을 강조하는 라오스의 이른바 삼상정책(three-build policy)의 기조 아래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DB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7-2020)

라오스에 대한 ADB의 국가협력전략이 포괄하는 기간은 2020년까지이나 이

전략서에 기반한 지원, 사업계획(business plan)은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ADB는 라오스 정부의 제8차 NSEDP가 (i) 지속적이고 견고한 포용적 성장, (ii) 인적 자원 개발, (iii) 자연자원과 환경보호와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각각에 대응하는 세 개의 전략적 우선지원 항목(strategic priority)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지원분야를 제시하였다. 우선지원 항목 세 가지는 (i) 고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민간 부문 개발, (ii) 인적 자원 개발, (iii)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및 기후 회복력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 농촌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생산적 농촌 인프라(productive rural infrastructure: PRI)라고 할 수 있는 농촌 전기 보급, PRI를 통한 농기업 육성과 농업의 상업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영농폐기물 관리 등이다(ADB 2017).

〈표 3-5〉 ADB 국가협력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CPS 목표 및 장기적 성과	CPS 세부 우선 지원분야	ADB가 지향하는 핵심 단기 성과
(i) 고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민간 부문 개발	인프라 개발과 지역협력 및 통합	농촌 전기 및 에너지 보급 개선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협력 및 통합
		간선 도시지역 개발
	민간기업 개발 강화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 개발
	생산성 제고 및 농업의 상업화 촉진	생산적 농촌 인프라(Productive Rural Infrastructure: PRI) 개선 및 상업농 확대
	식수공급 및 위생 개선	식수공급 및 위생 서비스 제고
(ii) 인적 자원 개발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적자본 형성	기술 및 지식을 갖춘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 부문으로의 노동시장 이동 촉진
	보건 서비스 및 전달 개선	보편적 보건의료와 금융지원 및 관련 체계 개편
(iii)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및 기후 회복력 제고	자연자원과 환경의 여건 개선	토지이용 관리 개선을 포함한 유역보호 개선
	자연자원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농업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PRI, 수질관리, 기후변화 대응 영농활동
	기후변화 적응력 및 재해위험관리 개선	산림 및 기타 생태계 보호, 주민들의 기후 관련 사건, 재해에의 취약성 감축

자료: ADB(2017: 12-13)에서 발췌.

ADB의 국가협력전략은 라오스의 국가전략이 지향하는 중점추진분야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농업, 농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을 통해 농기업 등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자원의 보호에 관련된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라오스의 개발협력 수요

3.1. 개발협력 추진 체계

라오스는 ODA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원조 관련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원탁프로세스(National Round Table Process)를 통해 원조 이해당사자 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원탁프로세스는 원탁회의, 원탁이행회의, 분야별 작업반 회의로 구성되며, 동 회의들의 개최를 통해 정부와 공여국의 개발계획 및 전략,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한다. ODA 관련 주요 부처는 기획투자부, 외교부, 재무부이며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투자부는 무상원조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및 기관 간 조정과 각 부처의 유·무상 원조 수요 취합, 사업제안 및 요청, 개발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계획 총괄 수립, 보고 및 원탁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리, 조정, 심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외교부는 각 공여국과 ODA 관련 조약, 협정체결 및 외교 관련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재무부는 차관 사업과 관련한 차관신청서 접수처 역할을 담당한다.[62]

라오스는 농림업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정부 총 예산의 약 70%를 ODA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ODA의 2/3가 관개시설 및 지방도로 개설에 투

62) 관계부처 합동(2016: 9).; IPD(http://investlaos.gov.la/, 검색일: 2020. 3. 24.).

자되었고 잔여금의 50%는 전문가 고용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0%는 인재개발, 기술연구개발 및 빈민구제나 마을개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건설에 주로 투자되었고, 연구와 실험, 생산증대 등의 기술적 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식물 및 동물 질병보호 활동과 농림산물의 품질개발 및 표준검사 시스템,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SPS)을 위한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라오스가 농림산물 수출국이 될 경우 병해충 검사 시스템이나 품질생산 기준에 관한 증명 시스템의 설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와 공여 자금이 요구될 수 있다(MAF 2015a: 9).

3.2. 개발협력 수요[63]

라오스는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약 80%는 유기농산물이며, 합성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이 시행되고 있다. 평균 화학비료의 사용은 ha당 12kg이며, 오지에서는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라오스에는 1990년대 비정부기구(NGOs)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 OA)'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스위스의 개발원조단체인 헬베타스(Helvetas),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스위스개발협력청(SDC), 아시아개발은행(ADB), 영국의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등의 지원을 통해 2005년 유기농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2008년 인증원(Lao Certification Body: LCB) 설립 및 2009년에는 유기농 검사와 인증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라오스 농업부는 2005년 '유기농업'을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 시스템 및 제품'으로 정의한 바 있다.

정부는 2006년 제8차 및 제9차 인민혁명당 총회 결의안에서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을 농림업 분야의 전략적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고, 청정농업 개발 운

63) 이 소절은 위탁연구(Sinavong 2020)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동을 실시하였다. 결의한 목표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청정농산물 생산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전략 2020 및 비전 2030'에 청정농산물 생산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농산물 생산기준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농업 분야 2030의 비전은 "식량안보 확보, 청결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경쟁력 있는 농산품의 생산, 농업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량 증가 및 지역개발 연계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라오스 정부는 청정농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천명하는 청정농산물 생산 방향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와 유기농업(OA)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표 3-6〉 농업발전전략 2025 및 비전 2030 청정농업 실천계획

구분	내용
1	청정농산물 생산체계 기준개선 및 발전사업(GAP/OA)
2	청정농산물 생산 사업의 모델 설정, 시범단지 확대
3	지역 및 국제적 통합과 연계된 청정농산물 보증 시스템 개발사업
4	환금작물 생산기준 개발사업
5	식물 생산기준 개발사업
6	청정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7	청정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8	청정농산물 생산체계 관리를 위한 개발 및 강화 사업
9	청정농산물(GAP,OA) 기준에 부합하는 상업용 과일 및 채소의 재배 확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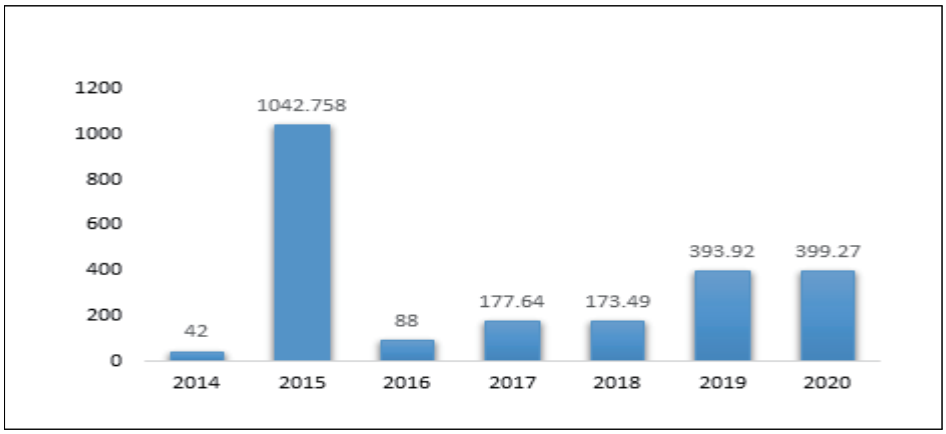
자료: Sinavong(2020: 7).

2030년까지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행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청정농산물 재배기술의 개발, 둘째, 작물 재배기준의 개발, 셋째, 인증 시스템 개발이다.

재배기술 개발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산자 단체와 농장은 생산하는 농산물의 최소 50%는 GAP 및 OA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생산자 단체와 농장을 등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청정농업개발센터에서는 GAP와 OA를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범농장을 설립하여 기술을 개발하며, 전국 각 주에 시범농장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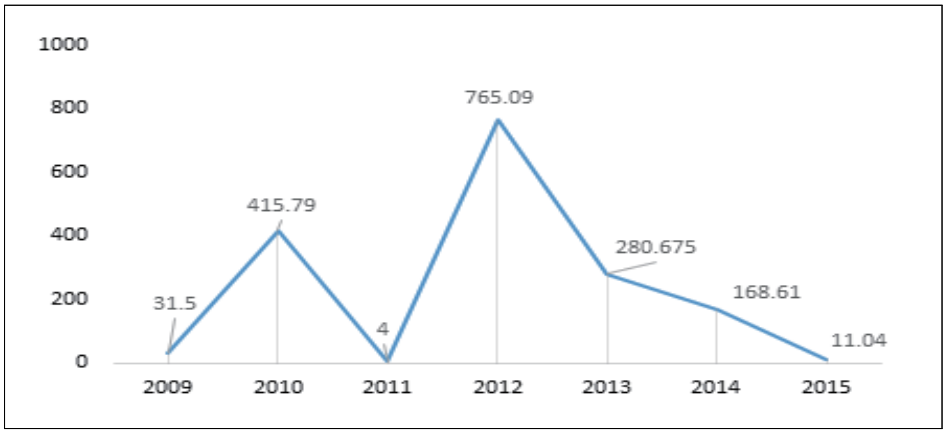
터를 설립하고 특히 루앙남타, 오돔싸이, 루앙프라방, 비엔티안시(Vientiane Capital), 사바나켓, 참파삭에 중점을 둔다. 이 지역은 청정농업지구로 수확량은 연간 약 3,375톤이다.[64] 이와 함께 각 주에 청정농산물 판매시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AF 2015a).

〈그림 3-2〉 GAP 기반 청정농산물 재식면적(ha)



자료: Sinavong(2020: 8).

〈그림 3-3〉 유기농산물(OA) 재식면적(ha)



자료: Sinavong(2020: 8).

64)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2402, 검색일: 2020. 6. 14.).

작물 재배기준의 개발은 청정농산물 생산국가로 등극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부는 작물생산 기준인 GAP 기준과 OA 기준만 인증하고 있으나 의무적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업용 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 농산물 생산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수출 농산물의 경우 수출 전 농림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MAF 20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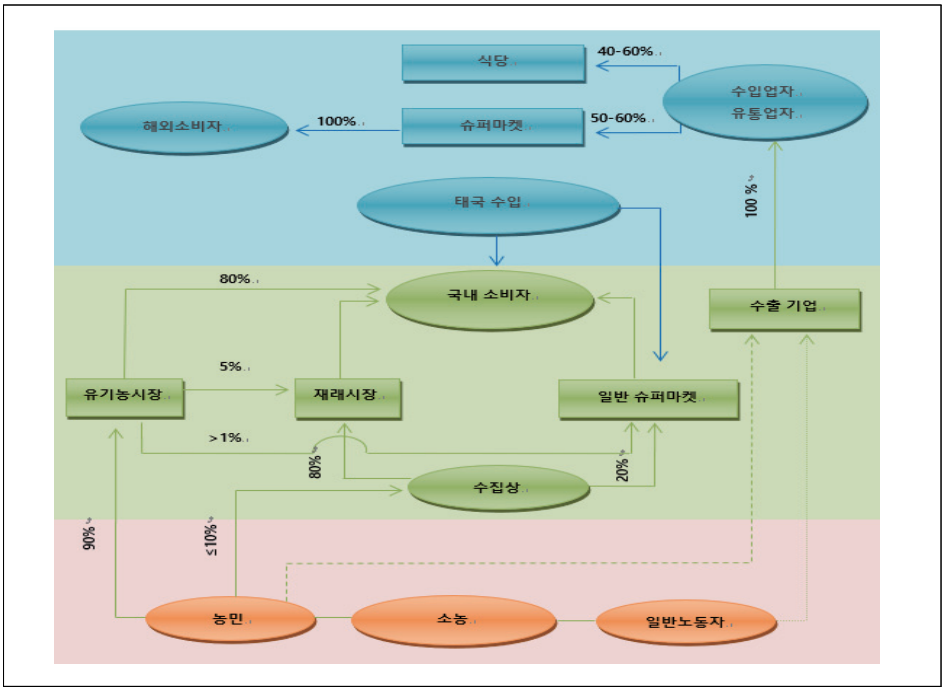
인증 시스템 개발은 국제인증 시스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존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림부는 최근 GAP와 OA 기준에 따라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이 인정하는 GAP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이 인정하는 OA 기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식물보호센터에 ISO/IEC 17025 기준에 맞는 잔류 독성 실험실을 설립하는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MAF 2015a).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헷사이퐁(Hadxayfong), 낙사이동(Naxaithong), 팍금(Pakngum), 시코타봉(Sikhottabong), 시사따낙(Sisattanak), 싸이타니(Xaythany) 및 싸이쎄타(Xaysettha) 등 7개 지구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한다.

비엔티안의 유기농 채소 공급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유통구조를 보인다. 첫째, 생산자(농민)가 유기농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로가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는 생산자-수집상-일반 슈퍼마켓(convenience store) 및 재래시장(Wet market)의 유통경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생산자는 수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직접 판매하고 가정배달(home delivery), 온라인 중개인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재래시장의 유기농 채소 소매상의 경우 납품받는 채소의 생산자는 대부분 동일하며,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채소와 혼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유기농 채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농민, 수집상 및 태국에서 유기농 채소를 공급받기도 하고, 수출 기업은 수량이 부족할 경우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또한 농민들 간의 소규모 거래도 이루어지고 수입된 유기농 채소는 슈퍼마켓과 식당에 공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보다 수입된 유기농 채소의 규모가 더 큰 실정이다.

〈그림 3-4〉 수도 비엔티안 유기농산물 가치사슬



자료: Sinavong(2020: 13).

비엔티안에는 공식 지정된 유기농 시장이 ITECC 팍(Park), 동나속(Dongnasok), 호우이홍(Houyhong) 등 총 3곳이 있으며 주 2회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비싼 가격으로 공급이 적었고, 잔류 농약 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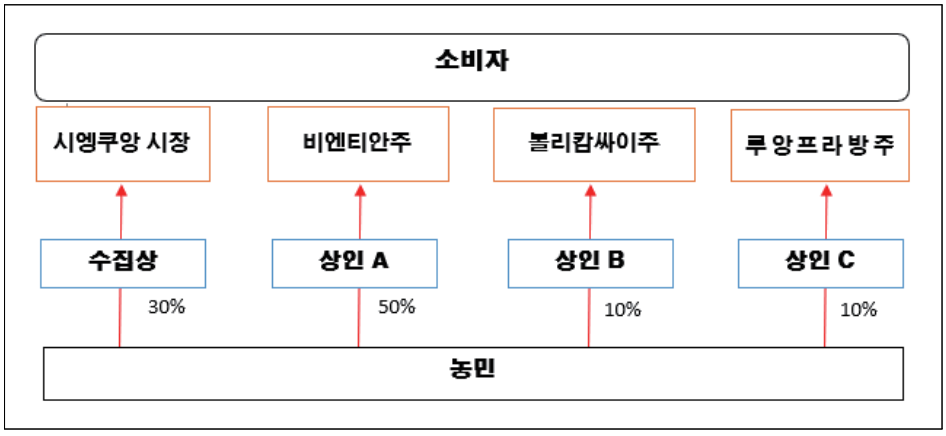
비엔티안의 6개 구에는 212개의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마련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배송을 실시한다. 주 고객층은 25~45세 여성으로 하루 100건 이상의 주문량을 보인다. 대체로 청경채, 공심채, 향신료 및 라오스 음식에 필요한 약초와 토마토, 감자 등이 관심 유기농산물 품목이다.[65]

65)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

비엔티안의 유기농 채소 납품업체 이해관계자의 면담에 따르면 유기농 채소 시장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유기농 채소는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량이 일정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출 비용이 높아 해외시장 진출이 어렵다. 유기농에 적합한 품종과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으며, 일반 채소와는 달리 포장이 필요한 유기농 제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GAP와 OA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북부 산악 지역에 위치한 시엥쿠앙주에서도 각 지역 농산물 개발을 위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쿤(Khoun) 군(district), 캄(Kham) 군, 펙(Pek) 군에서 청정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도 비엔티안과는 달리 시엥쿠앙주의 유기농 채소 공급 가치사슬은 단순하다. 채소의 유통경로는 '생산자-수집상-지역 마켓' 및 '생산자-판매상-소비자'이며, 생산자가 바로 시장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자가 수출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채소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비엔티안주와 후아판주, 사이아불리주와 같은 다른 지역에 주로 납품된다.

〈그림 3-5〉 지방 시엥쿠앙주(호이마을) 유기농산물 가치사슬



자료: Sinavong(2020: 18).

setIdx=243&dataIdx=182402, 검색일: 2020. 6. 14.).

시엥쿠앙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종자의 품종이 필요하고 건기와 우기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량과 채소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10월 우기에 생산되는 모든 채소는 생산량이 감소해 유기농 채소의 공급량이 적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온실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도 비엔티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정농업에 대한 마케팅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에 위치한 시엥쿠앙주에서는 마케팅 및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며, 신뢰를 기반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청정농업 개발에 유리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오스는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명확한 법적·제도적 규정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필요하고, 상시 공급될 수 있는 생산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한편,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은 인근 국가인 태국 및 인도의 음식점과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일본 등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출 기회가 존재한다. 미국, EU 및 일본은 라오스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산물 수출을 통해 라오스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와 통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NTR) 및 아세안 국가와의 거래에서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혜택을 받는 기회와 장점이 있다.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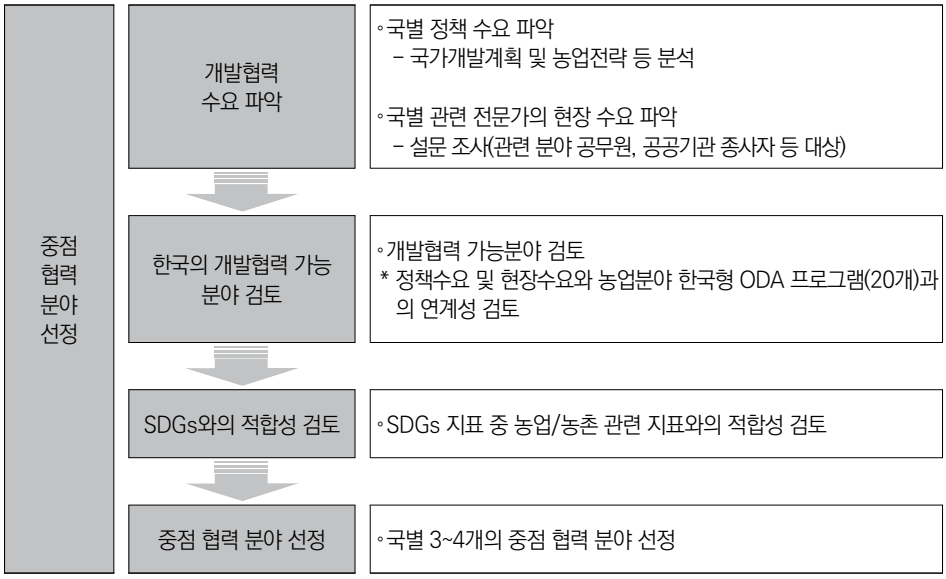
중점 협력 분야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라오스와의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개발계획과 농업전략 등 정책을 통해 국가적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현장 수요도 파악한다.

우리나라가 협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가능분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ODA 모델'의 20개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에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정합성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3~4개의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표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라오스의 국가개발전략, 농업분야 개발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분야들을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ODA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발협력 가능분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4-2〉 국가개발계획 및 농업전략 등 분석 결과

한국형 농업분야 ODA 프로그램	농업 정책수요							
	삼상 정책	농업개발전략(ADS)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농지 이용 체계 수립(작물생산 지역 구획화)	식량 작물 관개 인프라 (자연 재해 예방 포함)	청정 농업 생산과 식품 안전	기술 연구 개발과 보급	축산물 생산성, 위생, 상업용 축산물 가공	상업 작물 가공과 판매	기타
식량작물생산성								
영농기계화								
경제작목/시설원예								
친환경농업				◎				
관개/배수			◎					
농업생산기반			△					
농지제도		◎						
농산물유통								
농식품안전				○				
농업기술개발					◎			
농업인력육성								
농업협동조합								
가축질병관리					○	◎		
농산물가공						○	◎	
농촌종합개발	○							
농촌특화사업								
가축사육관리					○	◎		
농산물검역								
산림녹화								
임산자원개발								
종합 점수	2	3	4	5	7	8	3	-

주: 기타는 지방정부 역량강화, 투입재 사용관리체계, 작물보호, 식량비축제도, 식량안보와 영양임.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은 ADS에서 제시한 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분야를 모두 통칭한 것으로, ADS에서는 생산기술 보급과 서비스, 적정기술, 축산연구와 기술보급, 품종연구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이 언급되어 있음.
종합점수 산정 기준: ◎는 '연관성 매우 높음 (3점)', ○는 '연관성 높음 (2점)', △는 '연관성 보통(1점)'

자료: 허장 외(2017: 36)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위 <표 4-2>에서 4점 이상을 차지한 4개 분야를 라오스와의 개발협력 가능 분야로 선정하였다. 삼상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농업개발전략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분야 선정 시 고려하지 않았다.

농업개발전략(ADS)에서 제시한 식량 및 상업작물, 축산물 관련 전략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협력과제가 된다. 즉, 식량작물에 대한 관개 인프라 개발(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 용도 포함),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의 육성, 그리고 농산물 품종, 생산과 재배, 축산물 품종, 생산과 사양 등 기술 개발과 보급, 축산물 생산성과 위생 제고 및 상업용 축산물 가공 등이다. 이 가운데 청정농업 육성은 「농작물부문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the Crop Sector 2025 and Vision 2030)」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형 ODA'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점 협력 분야를 확정한다.

〈표 4-3〉 SDGs와의 적합성 검토 결과

라오스의 개발협력 수요	한국의 협력가능 분야	관련 SDGs 목표
식량작물에 대한 관개 인프라 개발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업생산기반 구축	2.1, 2.4, 13.1
'청정농업'과 이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	- 친환경농업 육성 - 농식품안전	2.1, 2.4
농축산물 품종, 생산과 재배 등 기술개발과 보급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2.1, 2.a
축산물 생산성과 위생 제고 및 상업용 축산물 가공	- 가축 질병관리 - 가축 사육관리 - 농(축)산물 가공	2.1, 2.a

자료: ADB(2017: 12-13)에서 발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라오스의 농림업 중점 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①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②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③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④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중점 협력 분야는 '한국형 ODA'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표 4-4〉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목표	중점 협력 분야	관련 한국형 ODA 프로그램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업생산기반 구축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 가축 질병관리 - 가축 사육관리 - 농산물 가공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안전한 농식품 생산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 친환경농업 육성 - 농식품안전

자료: 저자 작성.

3. 중점 협력 분야 가치사슬

한편 라오스 농업 가치사슬 가운데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내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AHP 방법론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66)

국내 전문가 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생산 인프라, 생산기술지도, 유통, 저장 및 가공, 농민역량, 투입재 등의 순으로 중요도 0.1을 넘겼다. 이를 통해 볼 때 생산단계에서의 인프라와 기술을 유통과 저장 단계보다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내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104	0.221	0.159	0.117	0.144	0.028	0.064	0.113	0.051
우선 순위	6	1	2	4	3	9	7	5	8
일관성 비율	0.0333(8)								

자료: ( )는 표본 수.

66) AHP 조사 개요는 종합보고서를 참조할 것.

라오스 현지 전문가 조사에는 9명이 참가하였는데, 이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금융 서비스, 농민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그리고 생산 인프라가 가치사슬 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표 4-6〉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외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030	0.100	0.098	0.099	0.077	0.074	0.244	0.163	0.115
우선 순위	9	4	6	5	7	8	1	2	3
일관성 비율	0.0361(9)								

자료: ( )는 표본 수.

국내, 국외 조사결과를 합하여 보면, 생산 인프라, 농민역량, 금융, 생산기술 지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종합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058	0.157	0.133	0.116	0.112	0.050	0.141	0.148	0.085
우선 순위	8	1	4	5	6	9	3	2	7
일관성 비율	0.0136(17)								

자료: ( )는 표본 수.

1단계 국내, 국외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라오스의 농업가치사슬 중에서 생산 인프라(농지, 관개시설), 농민역량(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업협동조합에 참여하려는 의지), 금융(금융 접근성, 이자율), 생산기술 지도 분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8〉 라오스 농업가치사슬 하위 지표 분석(2단계) 결과

평가 항목	생산 인프라		농민역량		금융		생산기술 지도	
	토지소유	관개시설	농민 수용태세	협동조합 참여 의지	금융 접근성	이자율	재배기술 훈련 시스템	농촌지도사 역량
중요도	0.402	0.598	0.607	0.393	0.499	0.501	0.463	0.537
우선 순위	2	1	1	2	2	1	2	1
일관성 비율	- (17)		(17)		(17)		(17)	

자료: ( )는 표본 수.

'생산 인프라' 지표에서는 관개시설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하며, '농민 역량' 지표에서는 농민 수용 태세(새로운 작물 도입,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지표에서는 이자율(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이자율)이 중요하며, '생산기술 지도' 지표에서는 농촌지도사의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라오스와의 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는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안전한 농식품 생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장기 목표 아래 추진될 수 있다.

2. 세부추진 과제

2.1.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2.1.1.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라오스의 ADS에서 제시한 '기술적 조치들' 가운데 수자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관개 인프라 개발'과 '자연재해 예방과 해결'이다.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였으나 이를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농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DS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MAF 2015a).

연간 이모작 혹은 이기작을 달성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우기에 35만 5,000ha, 건기에 24만 ha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로 개선, 펌프장 현대화, 수력발전용 저수지로부터의 방류수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력식 용수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관개시설을 설치하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양수기 사용을 차선의 방식으로 채택한다. 정부가 쌀 중점 생산 지역으로 선정한 10개 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이들 10개 주에서 2025년까지 최소한 46만 3,500ha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 예방과 손실로부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농업개발계획에 자연재해 관리, 예방, 통제 계획을 포함시키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둘째, 각종 재해가 빈발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자료,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주요 강가에 수문, 둑 등을 건설, 보수, 개조한다. 넷째, 우기 시작 이전에 각종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인프라를 활용한다. 다섯째, 가뭄, 홍수 등에 적응하는 작물 종자와 적절한 재배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여섯째, 비관개 지역에서는 소규모 저수지를 건설하도록 추진한다. 일곱째, 수자원 공급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벼와 다른 작물들의 적기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생산 일정을 수립한다.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AHP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개시설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즉 생산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농업진흥공사 설립 이후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형, 중소형 규모의 인프라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 해외 차관을 통해 대규모 농업기반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소규모의 수원개발 및 관개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였다.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마무리되고 경지정리사업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우량농지에 대한 기반정비,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이 이어졌다. 이

모작, 혹은 이기작을 하는 라오스와는 달리 논과 밭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논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현재 밭 경지정리가 진행되는 한편 방재 차원에서 수리시설의 개보수, 관리의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남호 2014).

농업 수자원 인프라가 개선되면 수자원의 양적 풍부함을 기초로 벼와 기타 작물의 이기작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가능해지면서 상업작물의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식량작물의 생산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축산물은 라오스 정부가 ADS를 통해 식량작물과는 별도로 필요한 과제들을 열거한 중요한 분야이다. ADS에서는 작물과 마찬가지로 가구 내 소비용 축산물과 상업·판매용 축산물을 구분하였다. 소비용 축산물은 대·소가축의 생산성 제고, 위생 조치 개선, 관련 기술연구와 보급, 상업용 축산물은 생산과 가공,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한 조치들로 제시되어 있다(MAF 2015a).

소 등 대가축 생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물소고기 1만 7,000톤, 소고기 3만 8,000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가축 사육을 위한 잠재적 초지 현황을 조사하고 사료용 초지 조성을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2025년까지 물소 사육 두수 13만 7,000두, 소 39만 2,000두를 달성하기 위해 물소개발센터(Buffalo Development Center), 소개발센터(Cattle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고 사양기술 보급, 사육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토종 소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돼지고기는 2025년까지 11만 6,200톤, 염소고기는 연간 4,000~5,000톤, 가금류 고기는 7만 9,000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낡은 생산체계를 바꾸어 나간다.

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부의 수의약품생산센터를 ASEAN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축백신을 연간 1,000만 도스까지 모든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공급망을 확장한다. 가축 위생체계 개선을 위해서 가축질병 감시체

계를 개선, 개발한다. 출혈성 패혈증,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앙단위에 가축질병 실험실을 국제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주 단위 실험실도 개선한다. 우량 사료 공급을 위해 사료분석센터를 개선한다. 수의약품 등록 및 관리체계, 축산물 검사체계도 수립한다. 아울러 축산물 생산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한다.

상업용 축산에서는 2025년까지 쇠고기를 1만 5,000톤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토종 소 사육농장에서의 증체, 인공수정을 통한 종축 개량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낙농 농장을 두 곳 이상 건설하며 1만 5,000ha 이상의 다수확 초지를 조성한다. 하루 70~100두 도축용량의 도축장을 5곳 건설한다. 공공, 민간의 돼지 품종 개량 활동을 지원하며, 산란계 품종 개발과 함께 전체 육계 수요의 10%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료생산을 촉진하여 전체 수요의 30% 정도만 수입하도록 한다.

곡물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에서 소규모 부업형으로 영위되던 축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육관리, 가축질병 대응체제를 갖출 정도로 발전하였다. 선진국 최고 기술 대비 약 70%의 기술수준을 갖추었고, 꾸준히 성장하여 농업 10대 생산품목 가운데 6개가 축산물일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이 되었다(이학교 2015). “인공수정을 포함한 가축사양기술 향상을 통한 축산자원개발, 가축경영 개선 지도를 통한 대상국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 가축 사육두수 증대 및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축산업은 개도국 주민의 영양 개선과 축산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허장 외 2012).

라오스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수입대체를 위해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초지 조성 등 사료 공급능력의 확대, 사육과 질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양성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축산물생산, 사육관리와 가공은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중점추진 분야가 될 것이다.

2.1.3.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농업기술과 관련한 사항은 ADS에서 인프라, 청정농업, 축산 등 여러 곳에서 언급되지만 특별히 식량작물에서 '생산기술의 보급과 서비스 확대', '새롭고 적절한 기술의 연구와 적용'으로 별도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상업작물에서도 '품종연구 및 재배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① 농민에 대한 생산기술과 부가가치 증대 교육 ② 농민의 조직화 ③ 생산과 마케팅의 통합 ④ 구입처가 없는 경우 생산 자재의 제공 등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한다. 특히 2025년까지 주마다 1개 이상의 농업생산 시범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의 잠재력에 입각하여 생산권역별로 한 개 이상의 시범 기술센터를 설치한다.

한편 연구개발의 주된 대상으로는,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농림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자와 기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관련 연구 등이다. 쌀 생산성은 우기에 ha당 4.5~5톤, 건기에 5.5~6톤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10만 톤 이상의 우수 벼 종자를 보급하도록 한다.

상업작물의 기술개발, 보급에서는 상업화가 가능한 작물의 토종 종자에 대한 연구, 재배 체계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비교우위가 있는 작물의 생산 확대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상업작물의 종자 생산, 국제적 기준의 적용, 그리고 관련 생산과 마케팅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라오스는 낙후한 농업분야의 개발을 위해 식량안보 및 소득원으로서의 농업을 지향한다. 이에 식량작물과 상업작물 분야로 나누어 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은 식량작물과 상업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적인 전략적 과제가 된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조사에 대한 AHP 분석 결과에서는 생산기술 지도와 더불어 새로운 작물과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수용 및 적용 역량이 중요한 협력과제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하나의 중앙단위 정부부처에서 담

당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활동이 지방 조직을 통해 농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즉,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와 농가에서의 기술 수요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군 농촌지도소,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 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대 초 설립된 농촌진흥청은 독립된 중앙부처로서 식량작물과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별도의 국립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발된 새로운 쌀, 원예 등 종자, 가축 품종이 지방의 연구개발 조직을 거치면서 보급품종으로 개발되어 관련 재배 및 사육 기술과 함께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될 수 있었다. 아울러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 농산물 저장과 가공, 운송, 유통 등 농축산물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에서도 매우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서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조직은 우수한 연구 및 지도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통해 연구사, 지도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2. 안전한 농식품 생산

2.2.1.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라오스는 이른바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을 2006년부터 국가적 정책방향으로 채택한 이래 ADS에서의 식량작물 관련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작물부문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the Crop Sector 2025 and Vision 2030)」에서도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5분의 1에 청정농업을 실시하여 유기농업 인증 7만 건과 GAP 인증 10만 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MAF 2015b: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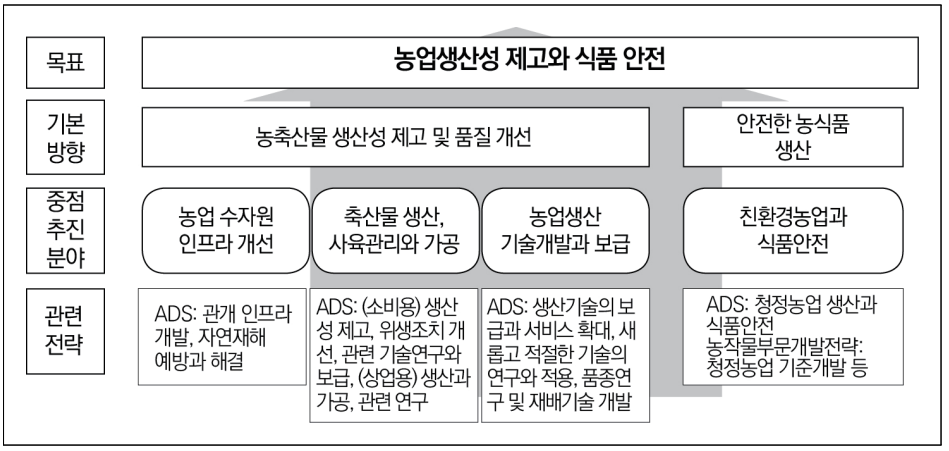
청정농업은 라오스 식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정농업을 위해 ADS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생산기술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들을 파악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이 GAP와 유기농업 기준에 맞도록 등록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청정농업 시범농장을 중앙 및 주마다 공업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와 협조하여 각 주에 하나씩 청정농산물 판매시장을 설치한다.

둘째, 작물재배 기준을 만든다. GAP와 유기농업에 관하여 모든 대상 농장과 생산자 단체에 적용할 국가적 작물재배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한다.

셋째, 인증체계를 수립한다. 현재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이 인증기준을 만들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농업 국내 농업인증단(Agricultural Certification Unit)에서 ISO/IEC 17065에 맞는 인증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ASEAN,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IFOAM)이 승인할 수 있는 GAP, 유기농 기준의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라오스는 화학비료 등 화학적 합성물의 사용이 많지 않은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체계와 기준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외로부터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 5-1〉 우리나라의 라오스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자료: 저자 작성.

3. 우리나라 해외진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

현재 라오스에 진출하여 민간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체는 3곳이 파악되고 있다.[67] 이들은 카사바, 콩, 옥수수, 커피콩을 재배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앞서 선정한 중점 협력 추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진출한 민간기업은 없다. 향후 중점 협력 분야에서의 ODA 사업을 기획할 때 관련 분야의 민간기업의 참여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오스와의 농업 부문에서의 중점 협력 분야에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수자원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건설에 노하우가 있는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67) 라코팜(카사바), 에코프라임(콩과 옥수수), 제이원볼라오(커피콩) 등(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http://www.oads.or.kr/global/global03.asp, 검색일: 2020. 11. 20.).

유지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둘째, 축산물 생산 등에 관해서는 축종에 따라 다양한 사료제조업, 가축 질병 등을 관리하는 수의업 분야,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업과 마케팅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친환경 비료와 농약 등 자재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직매장을 설치하여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라오스 중점 협력 분야와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계 방안

라오스 중점 협력 분야	연계 분야	민간기업 참여 방식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 수자원 인프라 건설과 유지	- 인프라 건설 및 시설관리·유지 담당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 사료 공급 - 사육관리 - 축산물 가공	- 사료제조 - 수의관리 - 가공시설 및 마케팅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 생산기술 연구개발 - 기술 보급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 생산 자재 - 마케팅	- 친환경 농산물 자재(친환경비료, 농약) - 직매장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라오스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며 전체 국토의 10%만 농업에 사용된다. 지형별로는 평야 지역, 비평야 지역, 산악 지역, 고원 지역으로 분류된다. 평야 지역은 농업용수 이용 방식에 따라 천수답 농업과 관개 농업 지역으로 나뉜다. 비평야 지역은 논벼 지역, 작물과 과수 재배가 가능한 지역, 가축사육을 위한 자연 초지로 분포되어 있다. 산악 지역은 북부 및 베트남 국경에 접경하여 메콩강의 수원지로 불린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라오스는 농산물 생산 및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과 토지 활용의 잠재성은 충분하나 토지 사용은 효과적이지 않다.

전체 인구의 약 67%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국가 노동력의 3분의 2인 약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업의 GDP 기여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쌀은 전체 농작물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식단 구성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오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16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는 수출용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도입한 후 자급자족 생산에서 상업화를 위한 쌀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옥수수는 전체 농작물 수확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며 쌀 다음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카사바는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용 농작물로 산악 및 고원지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작물이다. 사탕수수는 라오스 내 설탕 공장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 재배가 장려되는 작물 중 하나이다. 라오스는 커피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커피 가공업체 및 커피 프랜차이즈 기

업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오스 정부는 농업을 "가장 중요한 전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한 전략으로 농업개발전략(ADS)은 라오스 농림부가 2015년에 공표하였는데 2020년, 2025년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작물과 축산물, 시장경쟁력 있는 상업작물과 축산물로 구분하여 정책과 법령, 프로그램, 실행계획과 사업들, 나아가 집행과 점검, 평가를 담당할 중앙,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상세하게 열거하였다. '농작물 부문 개발전략'은 ADS의 취지와 ADS가 설정한 목표치 등에 따라 작물부문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20%를 이른바 '청정농업(clean agriculture)', 즉 친환경농업 대상 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라오스에 3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위 4위 공여국에 해당한다. 2017년에 제공된 ODA 총액은 133백만 달러이며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는 2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원한 ODA 사업 내역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영농기술, 채소 재배 및 벼 생산기술, 농업용수개발, 협동조합 관리 등 농업기술 전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들은 대체로 단기간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 협력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의 내용은 "농촌종합개발을 통해 빈곤 퇴치 및 소득 증대에 기여"이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라오스의 삼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정책과 제도화를 지원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모델을 토대로 라오스 상황을 반영한 농촌개발 모델을 마을, 군, 도 단위별로 정립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확립한다. 셋째, 농업기술 교육, 농산물 가치사슬 전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역량 강화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 넷째,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불발탄 제거 등이다.

지난 5년간(2013~2017) 라오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중 CRS 농림수산업(310) 부문 지원 총액이 2013년 2,281만 달러에서 2017년 5,132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對 라오스 지원전략 가운데 IFAD, FAO, ADB 등의 협력전략을 살펴보았다.

라오스 경제 및 농업현황, 국가 및 농업 부문 정책 등을 분석하고 라오스 측의 개발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라오스의 농림업 중점 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①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② 축산물 생산, 사육관리와 가공 ③ 농업생산 기술개발과 보급 ④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중점 협력 추진 분야는 ①, ②, ③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개선', ④ 분야는 '안전한 농식품 생산'이라고 하는 기본방향 아래 놓이는 것으로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라오스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라오스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비하여 적은 인구 규모, 내륙국가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 등으로 개발 여건이 불리하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하면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임산물과 커피 등 농림 분야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협력할 지점도 많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라오스와의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 추진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향후 국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리고 ODA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점 협력 추진 분야와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상인·조을생·허장·이대섭·정학균·박준현·제갈운. 2016.『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16.『라오스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김동관. 2017. “라오스 농식품 유통시장 현황 및 전망.”『농식품 &유통 이슈 리포트 』. AT농식품유통교육원.

김미림. 2019.『라오스의 경제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세원·안동환·김태윤. 2017.『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2020 국별진출전략: 라오스』.

박시현. 2014.『라오스의 화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수원. 2017.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nance, ODA) 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 라오스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지역사회개발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vol.42, No.2.

외교부 동남아2과. 2019. “라오스 개황.”『외교간행물』. 외교부.

유애라. 2019.『ASEAN의 ODA 중점 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남호. 2014.『「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연구 - 농업생산기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완주. 2014.『동남아시아(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해외농업 진출가능성 분석』. (사)농업사회발전연구원.

이요한. 2012.『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학교. 2015.『「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연구 - 가축사육 및 가축질병 관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20.『2020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허장·이대섭·정승은. 2012. “한국형 ODA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분야 ODA프로그램 선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형 ODA모델 수립』. 산업연구원.

허장·이대섭· 김종선· 최민정· 최은지· 안규미· 하경진. 2017. 『중남미 농촌개발사업 성과중심 통합관리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1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7-2020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18.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ADB.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6.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for Lao PDR 2016~2021.”

FAO Aquastat. 2011. “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O.

FAO and WFP. 2020. “Special Report: 2019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 to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AO.

GIZ. 2015. “Promotion of Climate Resilience in Rice and Maize Lao PDR National Study.”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

GIZ. 2017. “Sector Skills Study For the Agriculture and Food-Processing Sectors and Value Chain Analyses For Selected Sub-Sectors of the Agriculture and Food-Processing Sectors.”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

Howeler, Reinhardt. 2010. “Sustainable Cassava-based Cropping Systems for Smallholder Farmers in the Uplands of Laos.”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2018.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8-2024.”

Insixiengmai, Chittakone, Nguyen Nhut Xuan Dung and TR Preston.2017. “Sugar cane had higher yield when established from node cuttings rather than from long stems and had a higher sugar content when the soil was amended with biochar.” Livestock Research for Rural Development, Volume 29, Number 11, November 2017.

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9. “Export Potential In Lao PDR: Processed Wood and Specialty Agriculture.” International Trade Centre.

JICA. 201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Data Collection Survey on Selecting the Processed Food to Be Focused and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ood Business in Laos.” JICA.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15a.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the Year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15b.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rop Sector 2025 and Vision 2030.”

Manivong, Vongpaphane and Rob Cramb. 2020. “White Gold: The Commercialisation of Rice Farming in the Lower Mekong Basin.” Palgrave Macmillan.

Moglia, Magnus, Kim S. Alexander, Silva Larson, Anne (Giger)-Dray, Garry Greenhalgh, Phommath Thammavong, Manithaythip Thephavanh and Peter Case. 2020. “Gendered Roles in Agrarian Transition: A Study of Lowland Rice Farming in Lao PDR.” MDPI.

Phoumanivong, Saichay and Dusadee Ayuwat. 2013. “The Impacts of Contract Farming on Rural Farm Households, Lao PDR.”

Sengsourivong, Bouasone and Masaru Ichihashi. 2019. “Effectiveness of Irrigation Access on Sticky Rice Productivity: Evidence from Lao PDR.” Molecular Diversity Preservation International (MDPI).

Sinavong, Phonevilay. 2020.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in Lao PD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Food Safety and Market Access.”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NAFRI).

SDC. 2018. “Atlas of Agriculture in the Lao PDR: Patterns and Trends between 1999 and 2011.” SDC.

Welcher, Paul. 2019. “Laos Rice Report MY2018-201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World Food Programme. 2020. “Rapid Assessment of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in Lao PDR.” WFP.

[온라인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https://stats.odakorea.go.kr/>. 검색일: 2020. 3. 10.

외교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 검색일: 2020. 3. 5.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la-ko/index.do>. 검색일: 2020. 4. 13.

-라오스 경제 자료

-라오스 정세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20. 5. 20.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http://www.oads.or.kr/global/global03.asp>. 검색일: 2020. 11. 20.

Asianews. <http://asianews.eu/content/more-people-abandon-farming-jobs-laos-67395>. 2020. 6. 30.

CIA. <https://www.cia.gov/index.html>. 검색일: 2020. 4. 15.

City Population. <https://www.citypopulation.de/en/laos/cities/>. 검색일: 2020. 4. 13.

EMC. <https://emc-consulting.asia/2017/09/23/lao-pdr-labor-shortage/>. 검색일: 2020. 7. 3.

FAO. <http://www.fao.org/countryprofiles/en/>. 검색일: 2020. 6. 26.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data/CISP>. 검색일: 2020. 3. 9.

General Information about Lao P.D.R.. <http://www.seasite.niu.edu/lao/Lao_overview/general_lao.htm>. 검색일: 2020. 4. 13.

Greenpeace. <https://www.greenpeace.org/southeastasia/publication/4117/maize-land-use-change-and-transboundary-haze-pollution/>. 검색일: 2020. 7. 15.

IPD.<http://www.investlaos.gov.la/index.php/resources/statistics>. 검색일: 2020. 3. 24.

KOTRA. <http://www.kotra.or.kr/kh/main/customerMain.do>. 검색일: 2020. 4. 18.~6. 14.

New Agriculturist. <http://www.new-ag.info/en/index.php>. 검색일: 2020. 6. 27.

ODA코리아.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검색일: 2020. 9. 20.

OECD.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3. 8.

U.S. Library of Congress. <http://countrystudies.us/laos/45.htm>. 검색일: 2020. 4. 10.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검색일: 2020. 4. 22.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9. 26.

World Population Review.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laos-population/>. 검색일: 2020. 4. 13.

[기사]
온라인뉴스팀. 2019. 3. 6. “中해성그룹, 라오스에 10억불 투자 ‘세계 최대 국제 면세점’ 건설.” 『SBS CNBC』.
청와대. 2019. 9. 5. “한국 신남방-라오스 삼상정책 연계로 협력 증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송재선. 2019. 5. 31. “라오스 정부·한국정부에 바란다.” 『농촌여성신문』.
김정훈. 2020. 7. 6. “ 내륙 고립국 벗어나 ‘메콩 중심국’ 변신중 한국의 적극 투자 기대.” 『글로벌이코노믹』.

KREI

www.krei.re.kr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라오스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Lao PD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3520
9 791161 494418
ISBN 979-11-6149-441-8